제11회 졸업 특집

2002

www.wmu.edu

월드미션 헤럴드

World Missio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323)466-4629, Fax. (323)466-7840

2002 학년도 가을학기

월드미션대학교

유아교육학과 학생 모집

THE ORIENTAL MISSION CHURCH

World Missio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World Mission University 1989

수업 일정

가. 요아교육원(preshool)교사 자격증 과정은 15학점(5과목)
원장 자격증은18학점(6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한 학기 수료과정임.

나. 2002년 가을학기: 2002년 8월 26일 -12월 13일

강의 시간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9:00 AM 11:00 AM	CD 104(필) 유아교육 교과과정 및 교습 the curriculum and insturction for Early childhood program 정지연 교수	CD 105(선) 유아건강, 안전, 영양 Health, safety, & Nurittion for young children 변명혜 교수	CD 103(필) 유아창의력 개발 child Creative Experience 김유경 교수
	점심식사 11:00 - 11:30		
11:30 AM 1:30 PM	CD 106(필) 가정, 학교, 사회생활 Home, School &Community 정지연 교수	CD 110 Director(필) 유아교육 행정 Administration & Instruction for Early Childhood Programs 변명혜 교수	CD 101(필) 유아 성장과 발달 Early Childhood Growth & Development 안송주 교수

452

1. 지원 자격	중생의 체험이 확실하고 세례신자이며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학력 자로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린이를 사랑하는자
2. 구비 서류	입학원서 1통 (본교 소정악식) 추천서 3매 사진 2매 및 최종학교졸업, 성적증명서 각 1통
3. 등록 일정	가. 원서접수 마감. 8월 16일 (금) 오후 7시 나. 전형. 서류심사 및 면접 일자는 개별적으로 통지함
원서 교부 및 접수	본교 사무실 (학교로 방문 전화, 팩스, E-mail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더불어 입학원서를 우송해 드립니다

목 차

교 • 수 • 논 • 단

찬 • 조 • 논 • 단

학 • 생 • 논 • 단

발행인 : 임동선
편집인 : 이희성
편집위원 : 서필관, 남윤철, 서영탄, 이신재, 윤병완, 조기연, 김승희
발행일 : 2002년 6월 2일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거울입니다.

총장 임동선 박사
(본교 총장)

저는 신입생들에게 훈화의 말을 부탁 받으면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지성, 덕성, 영성을 쌓으라고 말을 합니다. 지성은 책을 통하여, 덕성은 고생을 통하여, 그리고 영성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 쌓아진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 경험을 통하여 볼 때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이 세 가지의 요소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월드미션대학교는 올해로 열한번째 졸업생들을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입학 할 당시 처음 만나거나 면접을 할 때 보면 신입생들 모두가 두려운 마음도 있고, 기대감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동산에서 공부한다는 것이 세상의 학문과는 다름으로 잘 감당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졸업 후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신학을 공부하게 된 것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무엇인가 교회에서 배우지 못한 깊이있고 체계적인 학문과 영성을 습득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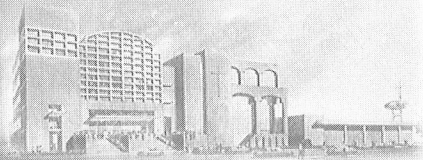
저는 사랑하는 졸업생들에게 여러분들이 처음 학교에 들어오셨을 때 가졌던 마음 즉, 두려운 마음과 가대감을 다시 한번가지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졸업이라는 말은 새로운 시작(commencement)이라는 의미가 있기때문에, 졸업식이라는 것은 또 하나의 새로운 장으로 들어가는 출발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고 꿈과 기대를 가지고 사역의 장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저는 또 말합니다. 신학교를 졸업했지만 계속해서 지성과 덕성과 영성을 쌓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런 요소들은 우리가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이상 하나님앞에 갈 때까지 계속 노력하고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졸업후에는 이 세 가지의 요소를 다른 방법과 각도에서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지성을 쌓되 이제는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지식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신학교에서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공부를 했다면 이제는 사람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현장 감각이 있는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읽는 책의 종류가 다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문적인 뼈대를 유지하되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와 상황을 잘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열심히 발로 뛰면서 현장 경험을 많이 하고 현장에서 오는 지식을 많이 습득해야 합니다.

덕성의 부분에 있어서도 학교에 다닐 때는 나 개인의 덕성 추구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졸업후에는 지도자로서의 덕성을 키워가야 할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되어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내가 또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본을 보이고 사람들에게 멘토링을 해줄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생을 통하여 덕성을 쌓되 목표가 있고 생산적이고 목회적인 일들을 도전하고 모험하여 많은 힘을 쌓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성의 부분에 있어서도 학교에서 배운 신학적인 체계위에 건강하고 실천적인 영성을 계속해서 쌓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생활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영성을 추구하시고 밝고 따뜻한 영성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실천적 모범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인내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를 할 때 제일 중요한 덕목중의하나는 인내인 것입니다. 특히 젊은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필수적이고 목회성공의 가름대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도 아쉬움과 동시에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사역의 장으로 보냅니다. 여러분들은 학교의 대사이고 학교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 하나, 행동 하나, 사역의 결과들은 그대로 모교를 평가하는 잣대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거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평가 할 것입니다. 지성, 덕성,영성이 더욱 훌륭한 경지에 이르러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졸업생들과 가족들과 그들의 앞길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필섭 장로 명예 인문학박사 학위기

이필섭 장로

본 대학교 제11회 학위수여식에 즈음하여 이필섭 장로에게 명예 인문학 박사 학위를 수여한다.

이필섭 장로는 충남 당진에서 출생하였고 당진농고를 거쳐 육군사관학교 제16기로 입교하여 1960년에 졸업과 동시에 육군소위로 임관 후 중대장으로 월남전에 참전한 바 있으며 사단장, 군단장, 육군사관학교 교장, 군사령과 합참의장 등의 군의 주요지휘관을 역임하고 육군대장으로 예편하여 33년 동안 국가와 민족에 충성을 다하였다.

군에서 각급 지휘관으로 재직할 때 성경100독을 하면서 모든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원칙을 모범적으로 실천하여, 계급의 고하를 막론하고 초교파적으로 모든 부대원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믿음의 지휘관으로 정평을 받아 1992년 국군중앙교회에서 장로가 되신 훌륭한 믿음의 좋은 군사이다.

군문을 떠난 후에는 국군중앙교회에서 시무장로로, 예비역 기독장교회 (OCU/MCF)의 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1994년 7월에 세계기독군인회 (Association Military Christian Fellowship)의 동아시아 지역 부회장으로 임명되어 세계 선교에 참여하여 몽고, 일본, 러시아, 대만, 싱가포르, 필리핀 등의 군선교 활동을 하였다. 또한 2회에 걸친 국제기독지도자 양성과정 (INTERACTION)을 한국에서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런 활동들을 통하여 한국기독군인의 신앙심과 자긍심을 온 세계에 드높여 주는 계기가 되어 1998년 미국의 NAE(National Association of the Evangelicals)로부터 백부장상(centurion award)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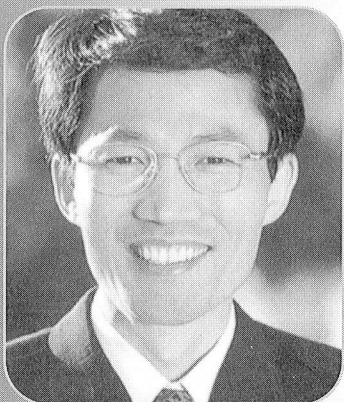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에서 군복음화를 통한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VISION 2020 실천운동 (서기 2020년도까지 군에서 전도해 매년 22만명에게 세례를 베풀고 고향의 교회와 협력하여 양육하고 가족을 전도하여 전국민의 75%이상을 기독교 성도의 나라로 만들자는 운동) 본부장으로 재임하면서 국내는 물론 세계 여러 나라의 군부대, 지역교회, 신학대학을 비롯하여 각 종교기관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집회 때 마다 여호수아 1장 8-9절의 말씀을 듣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본인의 신앙간증과 더불어 군재직시의 여러 상황적 믿음의 확신을 심어준 사례들을 통하여 민족의 VISION을 제시하고 국민적 협력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청년들을 깨우는 일에 박차를 가하는 일에도 중추적 역할을 다하고있다.

이필섭 장로는 국제적 신앙인으로서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 모범적인 신앙생활과 더불어 여생을 군선교에 바치는 믿음의 실천에 감명을 받은 세계기독군인회(AMCF)의 회장단에서 그를 차기 회장으로 내정하여, 2002년 9월에 취임하게 됨으로써 한국기독군인은 물론 국가적으로 명예를 세계만방에 떨치는 하나님의 종으로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

본교는 박사학위 수여 규정에 따라 교수단의 추천과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필섭 장로에게 명예 인문학 박사학위를 수여하는 바이다.

2002년 6월 2일

월드미션대학교 총장 임동선 박사

영성목회의 배경과 원리

강준민 목사
(본교 부총장)

'영성목회의 배경과 원리'는 새천년을 맞이해서 조국교회에 전했던 내용이다. 이 글은 짧은글이지만 내가 살아온 삶의 배경과 함께 나의 핵심가치인 영성목회의 원리가 담겨 있는 글이다. 이 글을 사랑하는 월드미션신학대학의 신학도들과 동문들에게 나누고 싶다.

나는 지극히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내가 막 태어났을 때만 해도 우리 가족의 생활은 괜찮았다. 성장하는 나를 보고 아버님은 "네가 국민학교에 들어가면 음식을 해서 지게에 싣고 소풍을 가자"고 말씀했다. 그러나 그 일은 끝내 경험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아버님이 사업에 실패하시면서 생활에 어려움이 찾아 왔기 때문이다.

나는 처절한 가난을 통과하면서 성장했다. 강냉이죽만 2년 반을 먹었고, 강냉이죽이 끝났을때 보리밥이 시작되었다. 가난이 얼마나 불편하다는 것을 어린 시절에 경험해야 했다. 내게는신앙적인 유산이 있거나 대단한 가풍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은 불교와 무속신앙을 따라 사셨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어머니에게는 고고한 삶의 철학이 있었다.

어머니는 초등학교를 나오셨지만 진실, 겸손, 그리고 성실을 가장 중요한 교육의 원리로 삼으셨다. 거짓말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셨다. 남에게 구걸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싫어하셨다.아무리 가난해도 정직하게 살아야 하며, 남에게 싫은 소리를 듣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 가난은 불편할 뿐이지 불행한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셨다.

어머니는 자녀들 가운데서 내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셨다. 그것은 태몽 때문이었다. 지금도 82세가 되신 어머니는 그 꿈을 생각하며 기도하신다. 나의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꿈이 이루어지는 가를 지켜보며 살고 계신다. 태몽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향한 꿈을 가진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강렬한 가를 말하고 싶은 것이다.

비록 기독교적 배경은 없었지만 나는 어린 나이부터 교회에 나갔다. 지금도 여전도사님이 어린 내게 가르쳐 준 노래를 기억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밥과 반찬 주시니 오늘 먹고 또 먹고 항상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때 마다 무릎을 꿇고 이 노래를 부르고 밥을 먹었다.

국민학교 3학년때 주산을 배우면서 교회 나가는 것을 중단했다. 학교 대표 주산 선수로 활동했기 때문이다. 국민학교, 중학교 시절을 보내면서 교회에 나가지 못한 죄책감

속에 살다가, 목포상고를 입학하면서 다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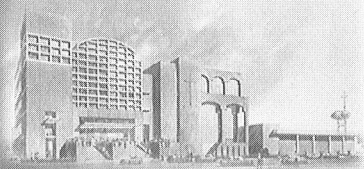
고등학교 1학년때 나는 처음으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나의 삶은 급격하게 변화되었다. 성령님은 강하게 나의 영혼을 흔드셨다. 강한 죄의식이 나를 사로잡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억나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할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의 죄를 고백했다. 내가 청산해야 할 것은 직접가서 용서를 구했다. 친구들과 함께 문방구에 가서 훔쳤던 물건들은 직접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돈을 갚았다. 부모님을 새벽 2시에 깨워 부모님께 잘못한 것들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했다. 철저한 회개가 끝났을 때 찾아온 고민은 '이제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내가 출석했던 교회는 진영섭목사님이 시무하시는 목포 측후동교회였다. 뜨거운 교회였고, 영적 전쟁이 강렬했고, 성령 충만한 교회였다. 진목사님은 30세의 나이에 뜨거운 정열을 가지고 그 교회에 부임하셨고, 중고등부가 부흥될 것이라는 비전을 보고 서울에서 내려오셨다. 진목사님은 대단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아 주셨다. 기도를 많이 하셨고, 강렬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셨다. 영어 실력도 탁월해서 통역도 잘하셨고, 공부를 참 많이 하셨다.

진목사님은 어린 우리들에게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심어주셨다.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좋은 책들을 읽게 하셨다. 그 당시 읽었던 책들이 나의 목회에 지금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워치만 니의 "자아가 죽을 때"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빌리 그래함목사님이 쓰신 "불타는 세계", "하나님과의 평화", 안이숙사모님의 "죽으면 죽으리라", "선다싱의 생애", "조오지 와싱톤 카아버의 전기",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 토마스 아켐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카타콤의 순교자" 등 많은 책들을 읽었다. 내촌감삼의 "로마서 주석"을 읽었고, 허셀 포드 목사님의 설교집을 영어로 같이 공부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제자 훈련이란 말을 쓰지 않으셨지만 탁월한 훈련을 시켜주셨던 것이다.

진목사님은 특별히 내게 목회자가 될 것을 계속해서 도전하셨다. 그 당시만해도 헌신한다면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이었다. 솔직히 나는 자신이 없었다. 나는 쉽게 수줍음을 탔고, 말도 어눌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내 가슴에 강렬하게 도전하셨다. 목회자의 길로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생애를 재 헌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번뿐인 생애를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영원한 것에 투자하고 싶었던 것이다.

사실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나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긴박감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며, 신학대학도 가지 않고 전도자의 삶을 살고 싶었다. 점심시간이면 후배들의 교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 사영리를 가지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예수님께 미쳐서 복음을 전했다.

고등학생의 눈에 비춰진 목회자는 두 종류였다. 공부는 많이 했는데 신앙이 없는 목회자와 믿음은 강렬한데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서 무식해 보이는 목회자로 분류할 수 있었다. 그때 내 마음속에 학자풍이 있는 신앙 깊은 목회자가 되고 싶은 열망이 생겼다.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목회자가 되고 싶었던 것이다. 그것은 나의 비전이었고, 추구하는 목표 중에

하나였다.

나는 참 교회를 좋아했다. 고등학교 때부터 새벽기도를 드리기 시작했고, 주일 학교 교사로 헌신했다. 새벽종을 2년 동안 쳤고, 교회 청소를 도맡아 했다. 나의 가장 중요한 모토 중에 하나는 성실함이었고, 치우침이 없는 걸음으로 정진하는 것이었다. 나는 특별히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했다. 부흥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을 때면 가슴에 불이 타 올랐다. 특별히 말씀을 연결시켜가면서 성경을 풀어주는 목사님들을 만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일찍부터 성경을 암송했고, 지도해 주시는 목사님께 순종하는 것을 기쁨으로 알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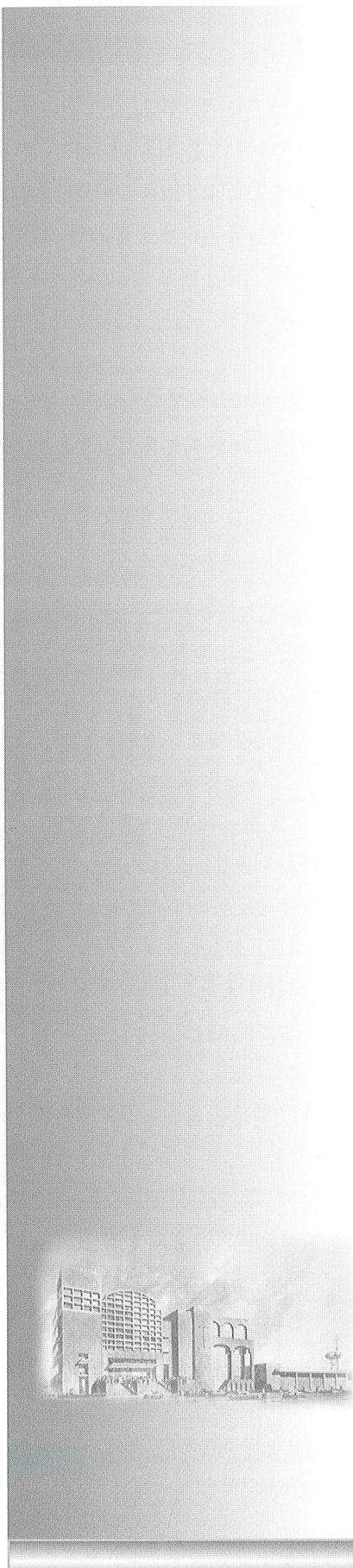
복음에 미친 나에게 진목사님은 서울신학대학에 갈 것을 권했다. 1975년 서울신학대학에 들어가면서 목회자로서의 신학 수련을 받게 되었다. 서울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유학의 길에 들어섰다. 미국에 와서 공부하면서 감사했던 것은 성경에 기초한 신학을 배울 수 있었다는 것이다. Azusa Pacific University 신학대학원과 Talbot 신학교를 거치면서 성경강해에 대한 기초를 형성했고, Fuller 신학교에서 성경언어를 다시 배웠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의 인생의 전환점은 1984년에 일어났다. 그 해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내 안에 심각한 고민이 생겼다. 그것은 나의 삶의 이중성이었다. 나의 생애를 주님께 드려 목회자의 삶을 살기로 헌신한 내 안에 남아 있는 경쟁의식과 목회자로서의 야망이 나를 무척 괴롭히고 있었다.

성도들의 영혼관리를 해 주는 영적 안내자로 부름받았지만 나의 영혼은 황폐해 가고 있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나의 삶의 양식이 아닌 성경공부와 설교의 재료로만 읽었던 것이다. 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중에 말씀묵상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의 수단임을 알게 되었다. 말씀묵상에 대한 안내를 받고 싶어서 수소문했지만 구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다. 결국 하용조목사님의 큐티세미나 테이프를 구입해 들으면서 고독한 영적 순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1984년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귀한 은총은 이동원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이다. 이 목사님에게서 신앙과 인격의 균형, 가정과 교회의 균형, 탁월한 강해설교자 그리고 영적 지도자로서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하게 되었다. Talbot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에는 Dr. Reuben Brooks를 멘토로 모시고 성장했다. Dr. Brooks는 브라질 선교사 출신의 교수님으로 정말 다정하고 자상한 아버지의 모습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다. 그분에게서 목자의 마음과 따뜻한 아버지의 사랑을 배울 수가 있었다. 또한 신학교 시절부터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이병돈목사님을 통해서 인격목회에 대한 모델을 보게 되었다.

말씀묵상에 깊이 들어가면서 나는 영성 훈련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말씀묵상과 함께 영성 훈련을 통해 깊은 영성 세계를 접하게 되었다. A.W. 토저와 리챠드 포스터, 헨리 나우웬, 폴 투르니에와 영성을 추구하는 분들이 쓴 영적 고전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식 속에서 성장할 수 있었다.

1989년 로고스교회를 개척하면서 인격목회, 영성목회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상적인 교회를 세우긴 어려워도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한국교회가 급격한 성장과 함께 불타는 뜨거움을 경험했지만, 영성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지는

못했다는 자성의 소리를 들으면서, 영성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한국 교회가 성장을 넘어서 성숙을 추구해야 하며, 극단적인 성장보다는 균형 잡힌 성장이 필요함을 느꼈다.

인격목회와 영성목회에 관심을 갖고 교회를 개척했지만 그 원리를 이민목회 현장에 적용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뿐만 아니라 어린 나이에 이민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었다. 1984년부터 큐티와 영성훈련을 해 왔지만 나는 힘든 교회개척과 연약해진 육체 때문에 영적 침체의 늪에 빠져들었다. 탈진의 아픔이 찾아 왔던 것이다. 교회창립예배를 드린지 4개월이 되었을 때 미국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나는 쓰러지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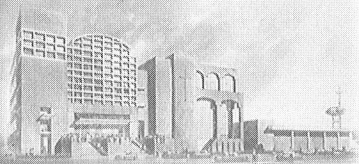
카이저 병원에 들어갈 때 두려움과 근심이 엄습함을 경험했다. 손이 차가워지고, 숨을 잘 쉴수가 없었다. 두려움이 찾아 올 때마다 심장은 뛰었다. 식욕과 함께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아무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을 통과하면서 죽음의 문턱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미국에 유학 온 이래로 학위와 성취를 위해 살아왔던 지난날들을 돌이켜 보며, 인생의 허무를 느꼈다. 그렇게 좋아하던 책들도 보기 싫어졌다.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모든 것을 다시 점검하기 시작했다. 나는 내 자신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육체와 정신의 관계, 영과 육체의 관계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이 살기 위해서 많은 책을 읽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극렬한 고통가운데 나타났다. 인간의 절망의 순간은 하나님의 희망의 시작이었다.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나는 광야학교에 입학했던 것이다.

광야학교에서 홀로 서는 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법을 배웠다. 나의 머리가 아닌 나의 가슴이 은혜아래 성장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웠다. 나의 정체성은 나를 아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데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배웠다.

가장 귀하게 배운 것은 목회자들의 영적 상태와 영적 침체에 대해서였다. 아무도 이야기할 수 없는 고민들이 목회자들에게 있으며 그들을 돕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은 하용조목사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다. 하목사님은 성령 사역과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강하게 내게 도전하셨다. 또한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권면하셨다. 기도와 말씀, 성령과 말씀, 성품과 사역의 균형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 새가 두 날개로 하늘을 나는 것처럼 영적 세계를 날 수 있는 균형잡힌 영성에 구체적인 눈을 뜨게 된 것이다.

깊은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나는 영성 목회에 대해 구체적인 눈을 뜨게 되었다. 영성목회는 목회자 자신의 변화와 성숙에 초점을 두는 목회이다. 성도들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기 전에 목회자 자신이 먼저 성장하는 것이다. 로마서 5장은 한 사람 아담의 범죄와 한 분 예수님의 순종이 전 인류에 끼친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영적 지도자에게 있으며, 목회자 한 사람의 변화는 성도 전체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깨달았다.

영성 목회는 내적인 변화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영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우선 깊은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는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뿌리에

있다. 겉으로 화려해 보이고, 성장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면은 공허하고, 뿌리는 병들어 있는 것을 본다. 우리가 내려야 할 뿌리는 예수님이시다(골 2:7). 예수님께 뿌리를 내릴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요 15:5). 뿌리깊은 영성을 추구할 때 요동치 않고, 견고한 교회가 될 수 있다.

나는 영성 목회의 특징을 저수지 목회에 두었다. 나의 영적 침체의 원인 중에 하나는 속이 차기도 전에 무엇인가를 주려고 했다는 것이다. 내면세계의 충만을 경험하기도 전에 사람들에게 나눠 주기 위에 진액을 뽑다가 그만 탈진상태에 이르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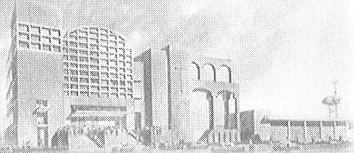
충만함이 아닌 공허함 속에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충격을 주려고 할 때 과격한 언어와 극단적인 방법을 쓰게 되고, 권위주위에 빠져들어 가게 된다. 목회는 열정만 가지고 되지 않음을 배웠다. 진리가 내면에 충만할 때 자연스럽고, 충만한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끌레르보의 버나드(Bernard of Clairvaux)는 저수지목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만일 현명하다면 운하가 아닌 저수지로서의 면모를 보여 줄 것이다. 왜냐하면 운하는 물을 받아들이면서 사방으로 물을 다시 보내지만, 저수지는 기다렸다가 가득찰 때까지 자체적인 손실이 없이 흘러 넘치는 물을 전달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저수지와 같은 사람은 거의없고 운하와 같은 사람이 많다."

영성 목회는 예방 목회와 같다. 성도들에게 저수지와 같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영혼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말씀묵상을 통해서 내면세계의 질서를 잡고, 내적 충만을 경험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목회자를 바라보기 보다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돕는 것이다. 말씀 안에서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영성 목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영적 독서이다. 영적 독서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경건서적을 읽는 것이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글을 읽는 것이 영적 독서이다. 영적 독서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말씀이 우리 전 존재에 스며들게 하는 것이다. 나는 책을 통해서 훌륭한 영적 안내자들을 만났다. 마틴 로이드 존스와 챨스 스펄죤 그리고 죤스타트와 같은 탁월한 영적 안내자들을 만났다. 좋은 책을 만난다는 것은 변화와 성숙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한 축복이다.

나의 목회 철학은 단순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섬기는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초점을 두고, 직분에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다. 나의 양이 아닌 예수님의 양으로 성도들을 존귀히 여기고 섬기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이다.

나는 목회자의 진정한 권위는 말씀과 말씀을 통한 섬김에 있다고 믿는다. 주일마다 선포하는 강해 설교의 목표는 성령 안에서 말씀 뒤에 그리고 말씀 아래 서서, 말씀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말씀을 통해서 죄인이 회개하고, 성도가 거룩하게 되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나의 설교의 목표이다.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내가 준비한 설교를 성령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가를 점검한다. 나의 목회는 방법보다는 원리 중심에 초점을 두어왔다. 조직보다는 성령의 역사 하심에 초점

을 맞추었다. 성취보다는 인격 성장에 관심이 있었다. 최근에 와서는 내게 더욱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고 있다. 원리와 방법, 성령이 역사 하실 수 있는 조직, 인격과 사역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솔직하게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초라한 인생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뿐이다. 오래 엎드린 새가 오래 날 수 있는 것처럼, 오래 엎드려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힘써 왔다. 고등학교부터 시작된 새벽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는 시간이다. 기도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기에 하나님의 긍휼을 매일 구하며 살고 있다. 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은혜요, 성도들의 노고이다. 잘못된 것은 나의 죄와 허물일 뿐이다.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 시대는 변화하고 있다.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아니 변화를 예측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새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변화에 적응하든지, 변화를 이용하든지 해야 한다. 또한 변화를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는 평생 학습자가 되어야한다. 교회도 학습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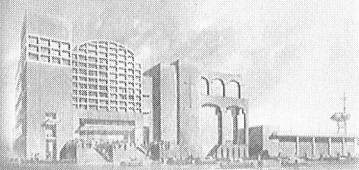
변하지 않는 피묻은 복음을 급변하는 시대에 전하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시대를 읽을 수 있어야 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실력은 적응능력이다. 새로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적응 능력일 것이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담력과 변화마저도 이용할 수 있는 적응력이 필요하다. 변화를 당연시할 뿐만 아니라 변화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들에게 지식을 넘어서 지혜를 주어야 한다. 지식을 넘어서 영감을 주어야 한다. 사람들은 만족을 넘어 감격을 원하고 있다. 신세대는 하이테크 시대에 하이 터치를 원하고 있다.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길은 영감있는 메시지와 강한 성령의 역사이다. 그리고 소그룹을 통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셀목회는 21세기의 중요한 목회 패러더임이다.

또한 가정이 정보의 센터요, 일터로 변해가고 있는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에 가정 목회는 목회의 주안점이 될 것이다. 목회자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성도들이 영혼의 안식과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새시대 사람들에게는 내적 치유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다. 깨어진 가정과 공동체를 통해서 받은 상처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영혼의 치유와 상한 감정의 치유는 새시대의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새시대의 목회자는 헨리 나우웬의 말처럼 '상처입은 치유자'가 되어 사람들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가 되어야 한다.

폭발하는 지식의 증가와 급변하는 시대에 영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또한 목회자들은 전체를 볼 수 있을 뿐아니라 자기 나름의 전문성을 추구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목회자가 양산되고 있다. 일년에 만명씩의 목사가 배출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수많은 신학대학과 신학교들을 보면 만명이라는 통계는 과장된 것 같지 않다. 그렇다면 지성, 감성, 영성, 그리고 야성을 겸비하지 않은 목회자들은 위기의식 속에 살아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한탕주의식의 목회가 아니라 대기만성형의 목회를 추구해야 한다. 저수지와 같이 자신을 채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역을 맡기실 때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기동력을 겸비

한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 영적 지도자는 비전을 가져야 한다. 동시에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한다.

미래학자들은 2020년대가 되면 73일마다 지식이 배가된다고 한다. 한 번 배운 지식만으로는 결코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을 원하는 영적 지도자와 교회 공동체는 먼저 학습법을 터득해야 하며 학습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가르치셨다. 성령님도 가르치는 진리의 영이시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끊임없이 말씀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성장했다(행 2:42; 엡 4:13; 벧후 3:18). 우리도 진리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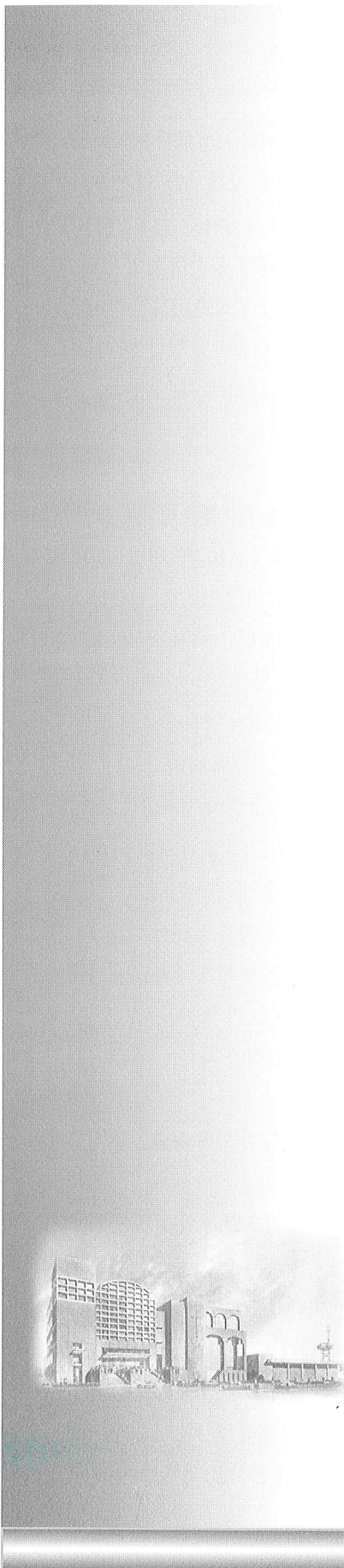
세계는 국제화되었다. 우리는 지구촌 시대에 살고 있다. 이제는 교단과 교파를 뛰어 넘어 사역해야 한다. 평신도들은 특정한 교단보다는 건강한 교회와 영성과 지도력을 겸비한 영적 안내자를 찾고 있다. 이제 교단과 교파간의 경쟁이 아니라 교단을 뛰어 넘는 연합을 통해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야 한다. 세계교회에 영향을 주는 이민교회와 한국 교회가 되어야 한다.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낙관주의적인 정신이다. 우리의 소망과 낙관주의는 하나님 안에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예측할 수 없는 새시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산 소망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다. 그러나 미래를 주도해 나가시는 소망의 하나님은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야 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롬 15:13).

나는 2001년 12월에 동양선교교회의 4대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개척자의 삶을 살았던 내게 있어서 동양선교교회는 새로운 사역의 장이다. 개척하는 것도 어렵지만 기존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 주시면 불가능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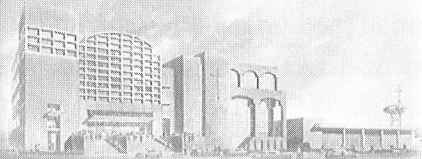
동양선교교회는 탁월한 영적 지도자이신 임동선목사님과 성도님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세워진 교회다. 내가 가장 먼저하고 싶은 일은 임목사님의 영성을 배우는 일이다. 축복은 위에서 아래로 임한다. 임목사님의 영성을 전수받고, 지도력을 전수받아 일하고 싶은 것이 나의 열망이다.

임목사님의 축복아래 내가 해야 할 일은 임목사님이 동양선교교회를 개척할 때 세운 기초를 더욱 견고히 하는 일이다. 가장 핵심적은 가치인 "선교, 교육, 봉사"를 유지하고 계승하면서 변화하는 새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나는 "방법은 변하지만 원리는 영원하다"고 믿는다. 영성목회는 성경적인 원리에 기초한 목회다. 동양선교교회는 또 하나의 영성 목회를 실현할 수 있는 좋은 터전이 되리라고 확신한다. 내가 사랑하는 월드미션신학대학의 신학도들에게 전수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영성 목회의 원리다. 조급함과 게으름을 정복하고 한걸음씩 깊은 영성과 학문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신학도들이 되기를 바란다.

The God of Freedom

Dr. John McKenna
(본교 부총장)

With the World Mission University last summer outside of Moscow, Russia, I taught some 25Russian pastors (one man was from the Congo and another from Pakistan) a course entitled Biblical Foundations for Spiritual Formation. We surveyed the subjects of the People of God and the Kingdom of God, their foundations in the history of Israel and their development in the witness of the Church to the Lord Jesus Christ. It was within the contexts of these subjects, the People and Kingdom of God, that we came to understand the development of the Messianic Hope given the world through the history of Israel. We saw that it was this Messianic Hope that bears the meaning and significance of the record we read in the Old and New Testaments of the Bible. The pastors of Russia were glad to hear of the divine freedom that the passion of the Lord God shows us in His Covenant with Israel and the Church in this way.

Our course attempted to show how the Revelation of the Great I-AM the Lord God is in His covenanted promise with His People in His Creation lies at the heart of the formation of the Pentateuch or Torah of Israel. The Revelation of His Name (Exodus 3:14), even though steadily resisted by the People of God (Exodus 32-34), shows us the faithful passion of the Lord God for His covenanted promise with His People (Exodus 34:6-7). He is a Self-Revealing God and Self-Defining Lord in His holy love and divine freedom with His Elect People. We understood this Self-Defining Lord and God in His divine perfections the Little Credo of the Great I-AM. He is in His own freedom a compassionate and favoring God, long-suffering, and of great grace and faithfulness in covenant with His People. It is as such that Israel is to know that the One whoredeemed her from her bondage is none other than the Creator of the heavens and the earth (Genesis 1-11) as well as the God of her fathers (Genesis 12-50). In spite of her steady resistance to her

Lord and God, amounting historically to an outright denial of Him (Hosea 1:9; Psalm 50:21), the Redeemer of Israel among the nations and the Creator of the heavens and the earth remains determined to fulfill the purposes of His promise in covenant with His People in His Creation.

It was with this understanding of the formation of the People of God that we read the Former Prophets (Joshua-Kings) of Israels history. The prophetic tradition in Israel is a continuation in her time under the command of the divine freedom and holy passion of Lord God to be who He truly is with her, a relationship often articulated in analogy with human marriage. The transition from Tribal Confederation in the Promised Land to the Monarchy of Israel with the Royal House of David in Jerusalem shows us again that, in spite of Israels desire for a king like the other nations of the world and her need to do what is right in her own eyes rather than obeying and going to the place where the Lord God has chosen to put His Name and there do what is right in His Eyes, God in His divine freedom and holy passion does indeed condescend and accommodate Himself to His Peoples opposition to Him. Thus, He may bring about the fulfillment of His covenanted purposes with Israel through the New Kingdom and the House of David. It is within the dynamics of this kind of divine freedom in the prophetic history of Israel that we read the great promise of the Great I-AM the Lord God is in covenant with His People to the new King David (2 Samuel 7:14-16). Here King Yahweh promises to be as a Father to King David. King David shall be as a Son to King Yahweh. In this way the Lord God promises never to remove His Chesed (Grace)
from the House of David. Davids Seed will always sit upon this Throne from which the Lord God will reign as the Father of Israel among the nations in His Creation. It is this promise that is the root from which springs forth the growth of Messianic Hope in the history of Israel. With this promise the God of the Universe promises to be Father to the King of Israel, His Son, and in this way reign ultimately over all that is His Creation. It is with this foundation that the command over His People among the nations shall realize His Covenants purpose in the world and His victory over all of His enemies. It is the secret of this relationship between Yahweh and Israel that shapes the center of Messianic Hope in Israel with her Creator. We name this center that center where all real hope in the world is to be placed, a chosen place where people may go and do what is right in the eyes of their Creator and Redeemer.

We studied the development and growth of this relationship as the ground upon which we may understand that, in spite of the fall of Israels kings from the command of their Lord and God, in spite of the Assyrian Exile in 722 BC and the Babylonian Exile in 586 BC, God would never forsake His covenanted promise to His People. It was the faithfulness of this divinely free and holy passionate God, whose command His People again and again refused to hear, that would ultimately bring about the experience of the fulfillment of the purpose of the covenanted promise with the history of Israel (Cf. Isaiah 4:2, 55:3; Jeremiah 30:9, 23:4-5, 33:14-16; Ezekiel 34:23, 37:24-25; Zechariah 6:12-13, 12:8). Based upon the divine freedom of the Lord God to act with Himself over against His Peoples steady diet of idol-making in the recorded history of Israel among the nations, we saw her prophetic tradition envision a day when the promise of an obedient House of David would see the ultimate reign of the Lord God of the heavens and the earth. Under the Reign of God among the nations a New World would be established. The divine judgment will have worked its work. The punishment of Israel in her covenant with her God will lead to her salvation. The Wisdom of Gods Word with His People in His Creation provides then the scope for Israel to see her future fulfilled in her covenanted destiny with her God (Hosea 14:19; Psalm 104:43). Israel would in the Latter Days see Gods New Creation, Isaiahs New Heavens and New Earth,

Jeremiahs New Covenant, Ezekiels New Jerusalem, New David, New Temple, New Priesthood, New Torah, and Zechariahs New regathered Israel. Her Messiah would deliver her from her Exile. She would experience this New World rest from all the enemies of the only Lord and God above and in the world. The Old Testament is to be understood in this way as a great-unfinished symphony of the great promise of the Great I-AM the Lord God is in His Covenant with His People in His Creation. Israel, even returned from her Babylonian Exile, must watch and wait for Him and for His Day. She does not return to the New World, but to the Old World where the prophetic spirit of the Word of God with her commands her to watch and wait for Him.

Here, we took notice that there is no definite article attached to the many anointed ones in the history of Israel in the Old Testament. Not until the so-called Inter-Testamental period do we begin to read the Messianic Hope formed into a concept of The Messiah. The waiting and watching possesses a diversity the horizon of which scans the scope of a great possibility. We took note that the wisdom of this witness of the New Testament to this Messiah comes as a great surprise to the watchers. Clearly, according to the New Testament, the Messiah the Lord Jesus Christ is comes as a Person that is unexpected and unwanted. Merely being open to the future does not guarantee one shall like what is to come.

In the Gospel of John, we read that Jesus of Nazareth claimed to be the Great I-AM the Lord God is in fact in His Covenant with His People in His Creation (John 8:58). The Person of the Lord Jesus Christ is the same Lord as the Great I-AM of the Burning Bush in the call of Moses to His People. He is thus the Great I-AM who called Abraham, and as such the Great I-AM that spoke the heavens and the earth in the Beginning into existence. He is this Great I-AM as the Incarnation of the Word of God now, and not merely the prophetic Word come upon a prophet of Israel, but the Messianic Hope of Israel realized as her Lord and God with her in her historical struggle in His Covenant. He is the Chesed or Grace of the Lord God with His People in His Creation. As such, we saw that He claimed to be the Light of the World (John 1:1-18, 8:12) and the fulfillment of Isaiahs Vision (Isaiah 42:6-7, 49:5-6). In His Light we may see His Father and hear our Father and know Him for who He truly is as our Creator and our Redeemer (John 5:19-29).

With this strong resonance of the I-AM the Lord God is in the Old Testament with the I-AM that the Lord God is in the New Testament, we saw the realization of the fulfillment of the covenanted promise with Israel. With the Incarnation of His Word, the Lord God has kept among His People in His Creation His Covenant Promise to Israel. He is, indeed, the compassionate and favoring and long-suffering God, the Lord of great grace and faithfulness with Israel and Israels Messiah. In the freedom of this Self-Defining mode, we understand the key to the Church of Jesus Christ. As the King of Israel and the Universe, Christ is the Head of the Church. It is with the Chesed (Grace) of the Father and Son relationship in the covenanted promise with Israel that we may understand the Majestic Truth and Glory of the faithfulness of the Lord God to His People in His Creation. Even the Church of our own time participates in the kind of waiting and watching to which the People of God have been commanded with this faithfulness. It is because He is this God in this freedom that the holy love of the Creator and Redeemer for all that has been made to exist can be enjoyed. Here the Great I-AM of the Biblical Witness is the place where His People are to go to do what is right in His Eyes, and not to any other place. Here we find the way the Old and New Testaments are to be integrated in the Being and Nature of God Himself. This is the One Person to whom we are commanded to go and participate with the Father and the Son in the Life of God.

We saw with some clarity, then, the Nature of the Being of this God as the source of the great continuity provided for us by the Great I-AM between the Old and New Testaments of the Bibles witness in the world. The divine freedom of this Great I-AM, this unique kind of Presence the Lord God provides His People with Himself, also provides the covenanted interaction between Himself and His People in His Creation that establishes the ground in which is rooted the great divine movement of God with humanity across whole centuries of time and the great movement of Gods Eternity into these times and time. Only upon this ground may we be able to learn to articulate a Biblical Theology capable of serving those who would from the pulpit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proclaim His Word to the world. The Dogma of the Person of the Lord Jesus Christ in this way has become the center where all may go and do what is right in the eyes of their Creator and Redeemer, where time and Eternity have been given union and communion against the idol-making of the enemies of God. It is the Dogma of this Person whose Gospel the Church is commanded to proclaim among the nations of the world. It is the Light and Truth of His Personal Revelation and His Self-Defining movement with His Word in the world that is to provide believers with the shape and substance of their faith. It is this faith that is able to preach Him to all the tribes and nations of peoples upon the planet. The Church, we concluded, must learn in this way to be faithful to His faithfulness and the faithful witness God has freely shoen Himself to be with His divine freedom in covenanted interaction with His People in His Creation. With His faithful witness, the Bible, Old and New Testaments, is to be understood as pointing all peoples everywhere to this place the One True and Living God has made for Himself in the world as the Father of Jesus Christ and the Father of the heavens and the earth. It is by His Spirit that the birth, death, resurrection, and ascension of His Humanity has been grasped and taken up to live as God in the New Beginning of the New Man with the New Creation. It is in this way and in this place that all creatures are called to be reconciled to their God and to enter into His Personal Reality as the King of the Kingdom of God over and with the world. We saw clearly, here, that we must learn to integrate the Incarnation of the Messiah of Israel as the Person of Jesus Christ with the reality of Gods Creation, if we are to wait and watch for what is to come to us, in spite of all of our opposition and the opposition of the nations to Him (Cf. www.quodibet.net for my articles on the Great I-AM of the Old and New Testaments). It is with this freedom that we may find our freedoms true meaning and significance and our humanity fulfilled in His Own Humanity with the covenanted purposes of the Lord God mediated by the Great I-AM the Lord God is with Israel among the nations in Gods Creation (1 Timothy 2:4-6). The exaltation of the Son of Man as the Son of God the Father establishes human freedom in the divine freedom with the truth of Gods Being and Nature with us.

I promised the Russian pastors that, if I returned to Moscow to teach again, I would explore with them this divine freedom of the Great I-AM that the Lord God is in His Covenant with His People in His Creation a little further. How did the early Church learn to articulate this divine freedom of the Revelation of God with us? So during my next visit, I want to explore the significance of the Incarnation of the Word of God in Gods Creation. The fulfillment of the covenanted promise of the Self-Defining God the Great I-AM is as the Lord of His Creation and His People introduces us to a whole New World of space and time and humanitys destiny in it with its Creator and Redeemer. In the rest of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outline what we would attempt to say to the Russians.

In His divine freedom the Word God has made Himself known with His holy love for the world as the man Jesus Christ (John 1:1-18). The new reality the Lord God had posited with Himself as His Word become flesh (John 1:14) face the early fathers of the Church was utterly and truly new for them and their God. The Lord has acted with Himself in His divine freedom in His Incarnation in such a way as to make Himself present to us in the

world in a way that was new for God and for mankind. Faced with this kind of freedom and new reality, the Church set its mind to confess and proclaim this Word to the entire world. They sought to root the Gospel of Jesus Christ in the ground of the Graeco-Roman Empire where they had experienced this newness of the Presence of God with them. I believe that we need to appreciate what they were able to accomplish for our own time.

Not without the Wisdom of God did they seek to explicate the Word become flesh in the Church (Proverbs 8:22f). The Messiah of Israel came as Gods Wisdom into the world. Christ as King of Israel cannot be understood without this Wisdom (1 Corinthians 1:18-25). He is as this King the Person who is the fulfillment of the prophetic, priestly, and wisdom traditions in the history of Israel. He has as this Person commanded even those who would, for the sake of their idols, resist Him, to come to Him as their Wisdom (Colossians 2:1-5), to be forgiven their enmity against their Creator, and to take the yoke of their Redeemer upon them, for tender is His might and merciful His desire for all people to be with Him where He is and to learn to do what is right in the eyes of His Father (Matthew 11:25-30). In this way, He is free to be who He truly is with us and to give us to know Him for who He truly is and His Eternal Life (John 5:24-27). He is free with Himself to make us to know His love and to become as His Children those who proclaim His good news across the world, even to those who persist in their contradictions of Him and their enmity against Him. He is the way that Gods Eternal Life is given to creatures within His Creation. Without a deep appreciation for the wisdom of this divine freedom, for the way the Great I-AM has taken in defining Himself as the Lord God for us in this world, we would have no opportunity to know Him as He truly is with us. It was this Person that the early Church attempted to teach the world in which it had been conceived a new as the People of God

The early Church invented two terms in order to speak of the New Reality of this Person the Lord God has posited of Himself in the world. To be sure the terms were freely invented. They are truly intended as a real reflection of the divine freedom with which Lord God acted both in the Beginning and in His Incarnation. The fathers frequently admitted here that they just barely knew that about which they were speaking. The Person of the Lord Jesus Christ was more to be adored than understood. They ought to, they could say, clap their hands over their mouths and with the Cherubim simply cry Holy, Holy, Holy. But because of Gods great grace and truth and humility, they must speak of Him, especially in the face of those who would not understand Him for who He truly is in the world. The two terms that formed the poles by which the fathers sought to explain Jesus Christ to the world were 1) The homoousion and 2) The hypostatic union.

1. The Homoousion

The Word become flesh was the Eternity of the Word of God as the Eternal Son entering the world as the man Jesus of Nazareth, a particular man in a particular time in the history of the world. Here was a New Reality the nature that compelled the Church to think afresh about the foundations of human thought, thought about God, the Cosmos, and Mankind. God was free not merely to become In the Beginning the Creator of the world of the heavens and the earth, but He was also free to go outside of Himself and become what He was not, even while remaining who He truly is in His Eternity. The Church faced a freedom in this way that would revolutionize the ancient world. She was compelled to understand that Christ was one in Being and Nature with His Father from Eternity and yet at the same time one in being and nature with the worlds humanity as the Messiah of Israel. The Incarnate Son of God was the Word become flesh with a divine freedom whose interaction as a Man with mankind meant the redemption of all creatures. God had come as a man to live within the created structures of

the world He created and faithfully redeem all created reality. Jesus Christ was not only one Being with His Father but also one being with humanity, as the New Reality of God that bears Gods covenanted grace and faithfulness to His People in His Creation. The homoousion stood both for the union and communion between the Incarnate Son, the Eternal Son, with His Father and the union and communion of Christ the Son with all humanity in Gods Creation. The unity of the nature of the personal reality of the Lord Jesus Christ was defined by the freedom of God to interact with created reality and to create union and communion between absolutely opposite beings and natures with holy passion to keep faith with Israel and the Church as His People. This is the Person of the Son, the King of Israel and the King of the Kingdom of God.

We cannot really grasp the significance of the Churchs proclamation of this Person, of the preaching of the Gospel of His Kingdom, without holding before us as steadily as we may both poles of this new reality He is the One posited by holy wisdom with divine freedom among us. He is the Lord God Himself with us as His Living Word, the Lord Jesus Christ in our times and all time. We will never truly be able to follow Him in this world without hearing the meaning and the significance of this Word acting freely for us in this divine freedom. It is with holy and divine freedom that God has chosen to atone for all reality with this New Reality. The homoousion is then a freely invented term to explain as far as we may the freedom of God to be who He truly is in His Eternity while going outside of Himself and becoming what He is not, a man in our place and for our sakes, while remaining who He is forever, even with His New Creation. A man now lives as God in Gods Kingdom over and with the world that is Gods Creation. God lives freely as this man for us in the time of the New Creation and in Gods Eternity. The meaning of this freedom in our time, I believe, is vital for the Churchs understanding and proclamation of the Gospel. We may need to find other words and terms to speak of the homoousial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Mankind in our time, but regardless of what words or terms we find it is to the New Reality of God with us that we must refer all of the listeners. The King of the Universe is present in this way redeeming the world for Himself. It is with this Person that all peoples have to do, in unbelief and in belief. To oppose Him is to kick against the goads, to swim in the river of time upstream against the worlds destiny with Him, to contradict with existence the Being of all beings. We may not have the same Gnostics the early Church faced, but we still have people who believe that Christ was a mere phantom of a man in history with historys God. We may not have the same Arians the early Church faced, but we still meet many who think that Jesus Christ was, good and perfect man that he was, not God, that he was merely a created being such as we are and not Eternal. We still find mystics and existentialists about Christ in our time who do not or will not understand the reality to which the Church attempts to point with the confession of the homoousial relationship between the Eternal Father with the Eternal Son in Gods Eternity by the Eternal Spirit, forever blessed. The Incarnate Son with the Eternity of the Father forms the foundational link that gives the Gospel of God its substance and shape, content and form in this world in God Himself. This is the way Christian Orthodoxy developed explanation of the Person of the Lord Jesus Christ in the world, His birth, His death, and His life as God and man in a world that is Gods Creation. Without the homoousial relationship between the Incarnate Son and the Father, there is no Gospel of God to proclaim to the world. The proclamation in the Church of the Kingdom of God falls apart utterly. We do well to understand it even for our time.

2) The Hypostatic Union

The homoousion and the hypostatic union of the Person of Jesus Christ cannot be conceived in any isolated sense from one another. The same divine freedom of God we have been discussing in the concept of the homoousion is

effectively in action also in giving communion and union to the two natures, divine and human, of the Person of the Lord Jesus Christ. Both the Nature of Gods Being with us and the nature of Mans being with God belongs to the effectiveness of this freedom. Ultimately, we shall argue that our freedom has been rooted in this freedom. The question is how may we learn with our freedom this divine freedom in which human freedom has become embedded? It is a question whose answer is vital for our time. The Churchs teaching on the freedom of God in the Incarnation of the Word of God with us provides us with more than a hint to the answer

We have said that God is free to move outside of Himself and become what He is not, a man as the Man Jesus Christ, while remaining who He truly is in His Eternity. The humanity of Jesus Christ is free, as God is free. The Incarnation, we see, has taken place within the freedom of God to be God with us, with the Being and Nature of God Himself. In Christ, human freedom and divine freedom have been made one in the one Being and Nature of Christ. How may we understand in this kind of union and communion within the unity and diversities we experience in the world? How does divine freedom define human freedom in the Incarnation of the Word, as the 'Word become flesh' in the world?

We recall that the Incarnation is to be understood as the fulfillment of the covenanted promise of the Lord God with the House of David in the history of Israel as the People of God. The whole of the Creation has been called to bear witness to this promise (Deuteronomy 32:1ff; Isaiah 1:2ff; Jeremiah 31:31-40). The fulfillment of the covenanted promise of redemption of His People cannot be alienated from the witness of Gods heavens and earth to the prophetic speaking of His Spirit with His People in His Creation. The freedom of the Lord God in His Covenant with His People is shown us everywhere in the record of the Old Testament and its anticipation of the fulfillment of its vision for Israel. The Incarnation as the surprising fulfillment of this covenanted promise must be taken seriously if we are going to understand the Messianic Passion of Gods free reign over and in the midst of mankinds confusion in the free world. We cannot, therefore, isolate and abstract our notions of the Person of the Lord Jesus Christ from the House of David in the Monarchy of Israels history and the promise of Gods chesed (Grace) forever. The Person of the Lord Jesus Christ is both the Son of David in the fullness of time of the promise kept and the Son of God of Gods Eternity. He is the King of Israel, the King of the Universe, and the King of Eternity. The reality of the royalty of the Incarnation of the Word of God in Gods Creation brings with itself its own logic. We must not abstract away from what it actually is in the world or subject this reality to what it is not. We must learn to understand it on its own terms, according to its own nature and being.

The way that the early Church wrestled with the New Reality at this point was with the positing of the concept of the hypostatic union of the natures, divine and human, of the Person of Jesus Christ. Famous in this effort are the four adverbs of Chalcedon (450 AD). Christ was One Person out of two natures, divine and human, One New Reality out of two, a) without confusing b) without changing the two natures c) without dividing and d) without separating them. Important it is to understand about this New Person in the world that the nature of God has not been transformed into the nature of a man and that the nature of Man has not been transformed into the nature of God. Each must retain in the unity of the Incarnation their own dignity, meaning, and significance. Christ was the God-Man posited by the freedom of Gods love for mankind in the world and in this love was mankind to be saved. This is the love of God in His Grace and Truth with us. Outside of the truth of this love, mankind remained under the judgment of Gods wrath in covenant with His People against His enemies. This grace and truth of this love provided the light of the divine salvation, the reconciliation of the Church in the revelation of

the Lord God, absolutely vital for the Churchs proclamation of the Gospel in the world.

Agreement over the efficacy of the four adverbs in the definition of the Person of Christ was much debated in the Church. Additional concepts needed to be worked out in order to understand the unity of thought that could best refer us to the actual nature of the New Reality of this Person in the world. Definite lines had to be drawn between the creature and the divine and yet these lines could not define their unity in Christ with His Father in the Godhead. Perhaps the Church has still to grasp the positive dimensions that would allow her effectively to announce the nature of this Person in the world. I personally believe that with the new debates between theology and science now in progress we may find better categories of thought to affirm the positive dimensionality of this Person in world time and space. Be that as it may, the early Church wrestled with this dimension with the invention of two notions to be thought of as embedded in the hypostatic union of the two natures of Christ, a) the anhypostasis of the Word become flesh and b) the enhypostasis of the flesh of the Word. The anhypostasis stood for the fact that the Word in His divine freedom did not enter into some pre-existing flesh when He assumed His flesh. No flesh existed outside of the flesh that the Word assumed in the Incarnation. The flesh of the Word has its origins only in the hypostatic reality of the Word Himself in His divine freedom to be with us. The enhypostasis stood for the fact that the flesh that the Word assumed in His freedom was truly human flesh, truly our flesh (The House of David in the form of Miriam of Israel in fact!). Both the anhypostasis and the enhypostasis of the Word become flesh needed to be appreciated in a complementarity that grasped both their oneness and their diversity or differentiation. They were in the Incarnation at once both differentiated in their natures, divine and human, while being apprehended as the real union and communion of these natures. The unity of the New Reality of the person of Jesus Christ took the Church quite beyond the laws of non-contradiction in logic and located the sufficiency of its nature in the freedom the Word possessed to act creatively on behalf of mankind from out of the Being of God Himself in this world. Here we face a complementarity that takes us quite beyond the uncertainty principle of modern physics.

The sufficient reason for the Incarnation is to be found in the love of God Himself in His divine freedom to be with us, a freedom exercised in the Beginning of the Creation of the world as well as here in the Incarnation of God in the world. The notion for this kind of complementarity was bound up with the idea of the perichoresis between the divine and human natures of the One Lord. This is simply a concept whereby the four adverbs are adhered to even while the real unity of the natures is confessed. Perhaps it is best to see it today as a field of relations in which each particular is made particular in a whole that is bound up with the wholeness of who God actually is with us in this world. In any case, we are faced with a freedom here that we ignore with great consequence in our times, when the definition of freedom is much debated across our world. I hope we shall be able to discuss this freedom with the Russian pastors.

Freedom for Russia, as well as for the rest of the world in our time, is much misunderstood and debated. We will do well if we are able to apprehend the real meaning of human freedom when it is given significance in the divine freedom of the Great I-AM the Lord God is in His covenanted promise with His People in His Creation as the Person of the Lord Jesus Christ. It is in His divine freedom to be who He truly is in the world that we may discover what our human freedom ought to be and to do in our time. I hope that we will be able to penetrate quite deeply and profoundly into these things in things in the course of our time together.

21세기를 주도하는 월드미션대학교

임성진 교수
(본교 학감)

2001년 2월 15일 Atlanta, Georgia에서 열린 제 54차 AABC (Accrediting Association of Bible Colleges) 총회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었다. 그것은 월드미션대학교가 AABC 가입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하였으므로 신청자 자격을 인정한다는 것이었다. 이 날은 월드미션대학교가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었음을 선언하는 날이었다.

2002년 1월 16일-18일까지 AABC의 실무자가 본교를 방문하여 학교의 실태를 살피고 여러 가지 제안과 격려, 그리고 시정사항을 전해 주었다. 이 날은 우리가 미국주류대학교에 실질적으로 합류하는 시발점이 되는 날이었다. 처음 AABC에 가입하려고 계획하였을 때는 학교의 외형적인 면만을 염두에 두고,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인가 자체에만 관심을 두었었다. 그러나 시정사항 을 보완해 가면서 깨닫게 된 것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 학교 전체에 주어지는 혜택이 너무도 크다는 것이다. 물론 시정사항을 보완한다는 것은 재정적으로, 시간적으로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하지만 그 결과가 가져다 줄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학교의 발전을 생각한다면 이 일이결코 간과할 것이 아니라는것이다.

AABC에서 본교를 점검하고 난 후, 그들이 평가서에서 지적한 칭찬은 본교가 그들이 기대하였던 것보다 훨씬 준비가 잘 되어있고, 개선의 여지가 분명하며 미국주류대학교로 발전하기에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평가에 동의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제안한 많은 내용들이 이미 본교가 시행하고 있는 것에 조금의 시정만으로 완료될 수 있는 사항들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이 제안한 시정사항은 현재의 입장에서 시정하기에 크게 무리가 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시정사항을 살펴보면, 그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교육 목표의 확립, 둘째 효율적인 행정, 셋째 교무행정과 교육시설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AABC의 시정사항을 자세히 소개하며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는 교육목표의 확립이다.

교육목표와 실천방안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Mission Statement와 Objectives를 실제적이며 구체인 것으로 정립

하여야 한다. 본교의 Mission Statement은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Mission University, an evangelical educational institution, exists to equip Bible-centered, mission-minded, leaders for the Church and the world"

이와 함께 교육목표에 대한 학교의 발전계획과 평가방법이 객관적으로 표준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에 관련된 모든 계획과 시행이 학교의 교육목표와 일치해야 한다. 학교의 교육목표에 맞추어 강의, 행정, 교무직원 활동, 목회실습 등 모든 분야의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런 방향으로 항상 수정되어야 한다. 이런 결과에 대하여 수립된 계획이 어떻게 실행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새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교육목표에 합당한 모든 교육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자체건물과 여러 계층의 다양한 학생모집이 필요하며 건전한 재정확보 등 기초적인 기반이 교육목표 와 일치해야 하며 부족한 부분은 충실히 보강하여 발전시켜야 한다.

둘째는 행정의 효율화를 이루어 모든 행정을 미국표준에 맞추어야 한다.

현재의 학칙을 미국표준에 맞는 학칙(Constitution)과 시행규칙(Bylaw)을 구분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정관도 미국표준에 맞추어 개정하여야 하며 이사회 정관을 재정리하여 기본적인 정관 (Constitution)과 시행규칙(Bylaw)으로 구분하고 해당분야 별로 재편집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효율화를 이루기 위하여 이사를 운영이사(정책결정), 재정후원이사(재정후원), 기도후원회로 구분하며 이사의 직능에 따라 독립적이며 자주적인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의 기구도 실제 적이며 표준에 맞는 합리적인 것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학교관련 모든 자료도 안전하고 기밀이 유지되도록 하되 정해진 보관년도와 중요성에 따라 구별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학교의 모든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하고 Back-up CD를 주기적으로 만들어 놓아야 한다. 이런 노력은 학교의 신뢰도를 높이고 안정성을 가져다준다.

회계관리도 미국표준에 따라 개선되어야 한다. 인가를 정식으로 받으면 학생융자와 정부장학금 수혜를 받을수 있게 되는데, 대외적인 보조를 받는 재무관리가 투명하게 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외부의 공인회계사로부터 정식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예산편성과 지출도 어느 누가 어떤 직책을 맡아도 언제나 통일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재정관련 지침이 확립되어 예산편성을 담당자가 작성하고 해당 부서의 목표달성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하며 결과를 확인하는 일이 필요하다

대외관계의 다양화가 매우 중요하면서도 우리학교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기도 하다. 먼저 학생 모집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유학생 관련 법규가 강화되어 유학생의 숫자가 격감될 것이 예상되며, 신학과 만으로는 입학생이 제한되어, 결과적으로 신입생 모집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AABC 인가를 받으면 더욱 학생모집이 용이해 질 것이나 그

이전이라도 다양한 학생모집 방법을 강구하되 지역교회에 주말강좌나 주중 강좌를 개설하여 학생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시간적이며 공간적인 확대와 함께 선택의 폭을 넓혀 주기 위하여 신학과 관련되어 지역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독교교육, 교회음악학과와 같은 신학관련학과를 증설하여 다양한 학생을 확보해야 한다.

안정된 재무구조를 이루는 것이 대외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그것은 여러 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재정지원을 받는 것이다. 안정적인 재정상태가 이루어져야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일관되게 지급할 수 있으며 우수한 교수도 선임하여 학교의 학문적인 질을 높일 수 있다. 이제까지 LA OMC의 헌신적이며 독자적인 지원으로 학교가 발전하여 왔으나 이제는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한다. 한 곳으로부터의 지원을 받는 것은 장점과 함께 약간의 위험요소도 잠재되어 있다. 이제부터라도 LA 동양선교교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모든 연합회 교회의 협력을 받음으로 안정된 재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 곳의 지원에 안주하지 말고 폭넓은 기관의 협력을 받으므로 모든 사람의 관심과 하나됨이 안정된 성장을 이루어 낼 것이다.

대외적인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자산을 형성하여야 한다. 자산 형성의 기초는 자체건물을 소유하는 것이다. 학교가 진정으로 발전하려면 재정적인 안정과 함께 자체건물을 확보함으로 학교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건물은 학교의 상징이며, 교육목표를 이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자체건물이 없는 학교는 외형적으로 수준 있는 학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어느 한 교회에 소속된 소규모의 수준을 벗어나기 힘들다. 교회와 학교가 함께 성장하려 할 경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상호발전의 기회를 잠식당하며 갈등을 유발하게 됨으로 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기도 한다. 학교의 발전은 서서히 단계적으로 이루어짐을 우리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유수한 대학들이 지역교회의 작은 학교로 시작되었으나 여러 단계를 거쳐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규모로 발전되었다. 월드미션대학교도 자체건물을 확보함으로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게 된다.

셋째는 교무직원과 교육시설의 효율화를 이루는 것이다.

교무직원에 대한 배려는 학교의 질을 향상시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다. Full-Time 직원에게 합당한 복지혜택(benefit)을 제공하여 자신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건강보험 제공은 기본적인 것이며 가능하면 pension 까지 제공해 주어야 한다. 가능한대로 학교의 규모에 맞는 적정의 전임교무직원을 확보하여 학교발전의 기초를 다져야 한다. 교무직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돕기 위하여 행정지침서를 작성하여 업무한계를 분명히 규정지어야 한다. 행정지침서를 제작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이루고 불필요한 혼선을 예방하여야 한다. 교수들을 위해서는 교수지침서를 제작하여 학교목표를 반영한 강의안 작성, 공정한 성적처리를 하게 한다.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위해 행정지침서를 제작하여 행정규례, 물품구매, 예산편성의 제도화, 책임과 권한의 한계 등을 분명히 함으로 불필요한 혼란과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학생지침서에, 학생사역(student ministry)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학생

사역 지침서에 기록함으로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한편 교수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하여 정식인가를 받은 학교(accredited school)에서 학위를 받은 교수들 을 채용하여 교수의 자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한다. 강의내용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학과 대학원과정의 강의를 구별하여 개설하므로 학문의 질을 높이고 교수와 학생 상호 간의 개인적인 인격의 교감이 이루어지게 하여야 한다.

교과과정도 교육목표에 맞추어야 한다. 교과과정을 교육목표와 AABC의 규정에 따라 필수과목 과 선택과목을 균형 있게 편성하여야 한다. 한 번 정해진 것에 만족하지 말고 끊임없는 분석과 의견수렴을 통하여 항상 교육목표를 향한 방향을 분명히 따라야 한다. 학생활동을 적극지원하고 자율적 행사를 허락하되 철저히 지도하여 예비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다듬어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학생사역(student ministry)을 강화하여 학창시절에 목회 기본을 습득하도록 하여야 한다. 학생사역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생들에게 목회실습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가능하면 대학교회를 설립하여 목회실습의 기회를 모든 학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학교의 수준은 도서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도서관의 개선을 위해 도서관직원을 행정적으로 학교의 직원으로 임명하고 교무직원과 동일한 복지혜택(benefit)을 제공하여야 하며, 교수의 역할도 겸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조치 뿐 아니라 목표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며 학교의 수준이 도서관에서부터 확인되도록 하여야 한다. 도서를 컴퓨터에 입력시키고 여러 권의 동일 서적은 정리하여야 한다. CD로 제작된 자료를 구비하며 저렴한 사용료로 이용 가능한 인터넷사이트를 발굴하여 모든 학생들이 다양한 자료를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서관 computer program을 최대한 up-grade 하여 도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사용자들에게 최선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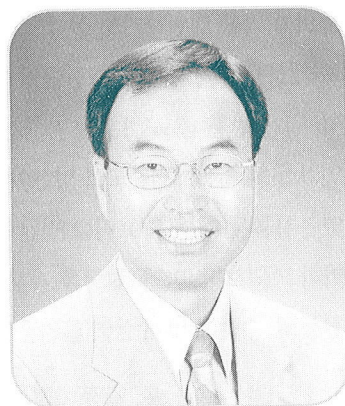
백년대계의 교육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development)부서를 신설하여야 한다. 물론 이 일은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로서 학교자산의 증식을 위하여 모금과 투자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하며 다양한 모금방식을 연구하여 지속적인 모금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후원기관과 개인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후원모금활동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본교에 대한 시정사항과 개선방안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분명히 제시해 주었다. 그것은 교육목표를 확립하며, 효율적인 행정시행과 교무행정과 교육시설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성취되면 본교는 많은 학생들이 많이 오고 싶어하는 학교가 될 것이며, 재정적으로 안정을 이루어 학교의 교육목표를 성취하게 되며, 더 나아가 쾌적한 면학 분위기를 제공하며 학교의 교육의지와 목표를 상징하는 자체건물을 갖춘 21세기를 주도하는 월드미션대학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시작하셨다. 우리 모두에게 이 일에 동참하라고 부르신다. 우리 각 사람은 자기가 맡을 몫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우리 모두 월드미션대학교의 역사에 참여하는 월드미션의 가족이 되자.

월드미션대학교가 강해지고 있다

남종성 교수
(본교 학생처장)

본교가 AABC (Accrediting Association of Bible Colleges)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본교에 주는 유익이 크다. 첫 번째 유익은 우리를 냉철하게 평가할 수 있는 잣대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미국에 있는 대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적 표준이 본교의 평가의 잣대가 되어왔다. 본교를 평가할 때 한국에 있는 신학교들이나 미국에 있는 한인신학교들과 비교하여 본교를 평가하여 왔다. 이런 기준에서 사람들은 본교를 비교적 좋은 학교라고 평가를 해왔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과 세계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더 궁금하다. 이런 면에서 AABC에 가입한다는 것은 본교를 미국의 본무대에 드러내 놓고 평가를 받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의 표준을 분석하고 비판하고 수용할 수 있는 대상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다.

AABC가입을 추진하면서 얻은 두 번째 유익은 본교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들을 발견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직접 부딪혀 일을 해보니 '우리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장점들이 많이 있더라' 라는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학교가 세워지면서 지금까지 설립자를 비롯하여 학교의 일들을 담당했던 분들이 한국과 미국의 교육시스템에서 교육을 받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학교를 이끌어 왔기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한국적 교육의 내용과 미국적 정책의 조화를 이루어 왔던 것이다. AABC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전혀 낯설지가 않고 우리도 공감하고 있는 내용들이라는 것이다. 어떤 부분들은 우리의 것이 AABC의 표준보다 월등하게 높다는 것이다.

세 번째의 유익은 AABC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들을 어떻게 미국의 표준에 맞게 표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다. 가지고는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세계적인 표준에 따라 이것을 정리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면들을 볼 때 AABC가 주는 유익은 대단히 큰 것이다.

이제 우리가 AABC의 회원이 되기를 원한다면, AABC가 어떤 기관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것을 알기위해서는 먼저 미국의 인가제도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우리가 알 듯이 미국은 자유와 기회의 나라이다. 교육적인 면에 있어서도 누군가가 교육에 대한 뜻이 있고 이 일을 행하고자 한다면 국가는 이를 장려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조건만 갖추면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한다. 해당기관이 신청서를 국가에 제출하고 자신들의 교육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면 미국정부는 인가를 위한

절차로 들어가게 된다. 학교에 평가단을 보내어 감사를 하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처음에는 조건부인가를 해준다. 그후 계속적인 지도와 감독 그리고 감사를 한 후 자격이 되면 정식인가를 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일들은 연방정부가 하지 않고 주정부가 맡아서 하고 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한국의 교육부가 하는 일을 주정부가 하는 것이다. 본교는 이런 절차를 받아 정식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정식인가를 받은 복음적 신학교육기관인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강점은 교육적인 면에 있어서도 정부 주도형이 아니라 민간 주도형이라는 것이다. 주정부의 인가는 최소한 법적인 요구조건을 묻는 것이라면, 민간단체는 좀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묻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간단체는 같은 목적과 같은 이해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독특한 단체를 만드는 것이다. 서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에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자신들의 회원들을 관리하고 권익을 도모하면서 자신들의 특징과 개성을 부각시킨다. 자신들의 이익과 정체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민간 단체들의 활동은 정부차원의 활동과는 질이 다르다. 같은 일을 해도 정부는 자격심사의 차원에서 일을 한다면, 단체들은 최고의 질을 추구하며 일을 하는 것이다. 주정부도 인가를 해줄 때 그 학교의 미션이 무엇인가, 특징이 무엇인가, 학교의 노선이 무엇이고, 철학이 무엇이고, 어떤 공동목표가 있는지를 물어본다. 그러나 민간단체는 이런 질문들과 더불어 이런 것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어떤 전략을 가지고 행하는지를 계속해서 점검을 한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지도해주고 최대한 도와주며 자신들의 수준에 맞게 끌어 올려준다.

미국은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많은 교육인가 관련 단체들이 있는 것이다. 수많은 단체들이 있지만 우리들에게 익숙한 대표적인 것들이 ATS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WASC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AABC (Accrediting Association of Bible Colleges) 등의 단체가 있는 것이다. 이런 단체들은 교육적 이념을 같이 하는 학교들이 연합하여 자신들의 단체를 만드는 것이다. 자신들의 단체에 들어오는 조건과 목적과 학문적 요건을 분명히 정해놓고 회원에 가입하게 하는 것이다. 자신들만의 특징과 자부심을 가지고 회원에 들어오는 학교들에 대하여 철저히 심사함으로 자신들의 단체의 질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단체들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다. 그만큼 기준을 높이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자격 요건을 까다롭게 함으로 선별해서 자신들의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미국은 정부가 주도하여 일방적으로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에 일임하여 각 단체들이 자신들이 목적과 정책에 맞게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면서 뜻을 같이 하는 학교들이 모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회원의 동질성은 물론 서로의 발전, 그리고 정보의 교환 그리고 학교 지도자들의 계속적인 교육과 개발을 돕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저력중의 하나는 바로 이런 민간단체들이 아주 많다는 것이다. 자발적으로 하되 영세하지 않고, 서로가 자부심을 느끼며, 실질적 도움이 되어주는 이런 연합회가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사회구석구석에 많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일들을 민간인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도 특성이 있으면서 경쟁력이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실력있는 민간 단체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미 연방정부 교육부는 이렇게 잘 갖추어진 민간 교육단체들을 심사하여 국가적 수준에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연방정부 교육국에 명단을 등재해 준다. 이렇게 연방정부의 공식적 인정을 받은 단체들은 곧 미국의 국가적인 표준에 도달하는 기관들로 인식이 되는 것이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런 단체들을 심사하는 기관이 CHEA (Council on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라고 하는 평의회인데, 이것 역시 비정부(non-governmental)기관 이라는 것이다. 이 평의회에 속한 전문가들이 민간 교육단체의 활동을 면밀히 살펴본 후에 교육적인 질이 높고 국가에 공헌을 할 수가 있는 단체들을 뽑아 교육부에 추천을 하면 교육부가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은 민간단체가 다하고, 연방정부는 심사하고 인정만 해 주는 쉬운 일을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은 효과적이면서도 차원높게 일을 하는 것이다.

주정부에서 인정을 해주는 것을 approved되었다고 말하고, 연방정부가 인정한 민간 인가단체의 인정을 받은 것을 accredited되었다고 말을 한다. 한국이나 미국의 교육기관들은 학교를 평가할 때 바로 연방정부의 CHEA가 인정한 명단에 올라 있는지 안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이 곳에 올라있는 학교들은 연방정부가 인정을 한 인가단체(accreditation association)의 회원학교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그들의 학점과 학위를 인정해 준다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미국학교들을 평가하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한국의 경우는 한미교육재단을 통하여 미국 연방정부의 교육부가 인정한 인가단체들과 이 단체들에 포함된 학교 의 명단을 열람하게 되는 것이다.

본교가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AABC는 미연방정부의 교육부가 인정한 교육인가단체이다. 이 단체는 5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의 성경학교들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이 단체는 미국전역에 있는 4 년제 성경대학교들의 연합체로서, 신앙노선이 대단히 보수적이고, 성경을 삶의 원리로 삼으며, 선교를 강조하는 학교들이 모인 연합체이다. 일반학과들도 개설을 하되 성경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매년마다 annual conference를 열고 학교의 지도자들이 모여 미국에서 영향력이 있는 연사들을 모시고 시대를 보는 안목을 길러주며, 이 시대에서 어떻게 교육을 효과적으로 해야 할 지에 대해서 많은 도전을 준다. 그리고 다양한 소그룹 강좌를 개설하여 관심있는 분야의 강의에 참석하여 많은 자료와 도움을 얻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그 외에도 특색있는 workshop과 친교의 시간 그리고 영감이 넘치는 찬양과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모든 회원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AABC는 본교의 학풍과 신앙노선과 아주 일치하는 훌륭한 교육연합 기관인 것이다. 복음적이고 보수적인 기독교계에 많은 영향을 주어 온 기독교 단체인 것이다. 모든 면에서 볼 때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단체인 것이다. 따라서 본교는 2000년부터 가입을 추진해 왔고 2001년에 Applicant Status를 자격을 획득하고 올 연초에는 AABC의 감사도 받았다. 좋은 평가와 더불어 앞으로 많은 가능성을 우리에게 던져준 귀한 시간들이었다. 본교의 실무자들은 작년에 이어 올해 플로리다에서 열린 55차 연차 총회에서 많은 도전과 배움을 시간을 가졌다.

본교가 AABC에 가입함으로 여러면에서 변화가 오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변화중의 하나가 전략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먼저 학교의 사명을 자각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었지를 계

속해서 평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다. 본교는 창립시부터 학교의 분명한 사명(Mission)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정립을 하였다. 본교의 미션은 "Mission University, an Evangelical educational institution, exists to equip Bible-centered, mission-minded leaders for the Church and the world"이다.

이런 분명한 Mission을 수행하기 위해서 학교 전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명을 수행해야 할지를 위해서 Institutional Objectives를 정했고, 이 밑에 있는 각 프로그램들이 어떤 목표를 가져야 할지를 위해서 Program Objectives를 정했으며, 이런 상위 목표아래서 각 과목들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지 각 과목별 Learning Objectives를 정했다. 이렇게 Mission Statement를 정하고 각 Objectives를 정할 때 철저한 설문조사를 통해 학교의 교수진 및 행정진 (본교뿐만 아니라 미국의 주류 신학교의 교수와 행정진의 의견도 수렴하였음), 이사진, 동문회, 교회학교 교사들 그리고 재학생들까지 의견을 종합하여 많은 시간의 노력을 투자한 가운데 결정을 하였다. 아직 부족하고 보완되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비교적 만족할 만한 출발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교수들의 학문적인 배경과 신학적인 노선에 따라 다양하게 수업이 진행이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의 사명을 가지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뛰며 정진하는 학교로 변해 갈 것이다. 다양성이 줄어들면 흥미가 줄어 들것이라고 우려를 하기도 하지만 하나의 목표를 향해 힘을 결집해 가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학교의 특성과 개성을 살리는 것이고 이것이 앞으로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가 있는 것이다.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학생들의 입장을 많이 고려하려고 노력하였다. 지금까지는 학습자의 입장에서보다는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서 일방적인 교육이 되어온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학문성이 있는 뛰어난 내용이 있는 가르침이 되었을 지는 몰라도 현재 교실에 앉아있는 학생들의 필요와 욕구를 깊이 생각하거나 고민하지 않고 가르쳐 온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훌륭한 교사는 자신이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말한 헨드릭스의 말은 모든 교사들이 들어야 할 귀한 교훈이다.

본교의 학생들은 나이가 든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있다. 대개 25세에서 60세까지의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있지만 주로 35세에서 45세가 가장 많이 있다. 이들은 나이가 들었고 다양한 사회경험을 하였기에 좀더 자아 주도적인 경향이 있다. 가정을 가지고 있고 낮에는 일을 하며 오후와 밤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일방적인 교수 주도형의 수업보다는 학생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고 그들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학습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즉 가장으로서 주부로서 부모로서 사회인으로서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학생들이 처한 삶의 환경이 그들의 필요를 결정한다. 학생들의 다양하면서도 포기할 수 없는 역할들을 교수가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들의 필요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본교의 학생들 대부분은 배운 즉시 실전에서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공부를 원한다. 학자가 되기보다는 목회자나 선교사, 그리고 현장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목표들을 세웠다. 이것은 위에서도 소개했지만 이미 설문조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Institutional Objectives, Program Objectives, and Learning Objectives 들이 정해져 있다. 이런 목표들에 바탕하여 교수들은 자신들의 과목을 가르치면서 학습전략을 세워야 한다. 대략 다음과 같은 절차로 전략을 세울 것이다.

학습전략을 세우는데 있어서 세 가지의 요소를 고려하게 되어있다. 세가지 요소는 KNW요소, SKL요소, CHR요소가 있다. KNW요소는 Knowledge & Understanding의 줄임말로서 주로 지식을 전달하는 요소를 말한다. 이것은 주로 암기와 기억에 의한 학습과 이해력과 분석력을 기르는 학습방법을 말한다. SKL요소는 Ministry Skill의 줄임말로서 지식적으로 배운 원리와 이론을 종합해서 목회현장에서 실천하고 이것을 다른 환경에서 적용하게 하는 학습능력을 말한다. CHR요소는 Character Qualities의 줄임말로서 품성과 신앙교육을 말한다. 교수와 학생간의 깊은 인간관계와 삶을 통한 학습을 하고 신앙적인 성숙을 추구하는 학습을 말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지식을 전달하는데 그치는 KNW의 요소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면, 이제 SKL의 요소와 CHR의 요소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전략적으로 하자는 것이다. 우리학교의 경우는 KNW의 요소보다는 SKL과 CHR 교육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KNW의 요소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다. 이에 바탕해서 다른 요소들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 세 가지의 요소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업시간과 숙제시간을 잘 활용하게 만들어야 한다. AABC가 요구하는 숙제시간은 수업시간과 동일한 시간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면 1학점의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5시간의 수업시간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교수는 반드시 15시간 동안 해야 할 과제물을 내주어야 한다는 말이다. 본교는 주로 한 과목에 3학점으로 되어 있기에 일주일에 3시간씩 15주간을 수업을 하도록 되어있다. 이것은 시간수로는 45시간이 되는 것이고 숙제시간도 45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배당된 수업시간과 숙제시간을 잘 활용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목표를 효과적으로 이루도록 교수가 학습설계 (Instructional Design)를 잘 해야 한다. 주어진 시간안에 KNW, SKL, CHR의 요소를 균형있게 다 다루어야 한다.

주어진 Learning Objectives에서 어떤 것들이 KNW, SKL, CHR의 요소에 속하는지를 구별하고 이어서 이에 맞는 학습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KNW의 요소를 잘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강의(오디오 테잎, 비디오 테잎을 포함하여), 독서보고서, 귀납적 학습법 등을 동원할 수가 있을 것이며, 때때로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이 들은 것이나 읽은 것을 paraphrasing, summarizing, restating 등을 하게 하여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어떤 내용들을 분석하게 하고 비판적인 사고를 통하여 KNW 학습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SKL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Role Play를 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이 다른 환경에 들어가 보게하여 적응력을 길러주고, 현장실습이나 Internship을 통하여 현장경험을 많이 하게함으로 사람들을 이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특정사례들을 연구하게 하여 현실감각을 갖게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수업시간에 배운 원리와 이론들을 계속 묵상하고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계속해서 생각하게 하고, 글로 표현하게 하는 훈련도 포함될 것이다. 교수 자신의 현장경험담도 학생

들이 SKL학습의 효과를 높이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무엇보다도 삶의 필요와 현장에서 들려오는 필요가 무엇인지를 귀담아 듣고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자세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CHR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수와 학생들간의 인격적인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교수가 학생들에게 멘토링을 해주고 제자도의 본을 보여주며 참다운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스스로가 찾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들에게 Team Project를 주어 상호 협력과 이해와 섬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략을 세워 목표를 추진하였으면 반드시 평가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 평가의 방법도 KNW, SKL, CHR의 요소에 따라 다를 것이다. KNW요소는 단답식, multiple choice, true-false 문제, 약술(brief description)문제 등을 통하여 평가할 수가 있을 것이다. SKL의 요소는 배운 내용을 어떻게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지를 묻는 에세이 시험, 현장실습에서 감독자의 평가, 학생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구두 시험을 통하여 평가 할 수가 있을 것이다.

CHR의 요소는 가장 평가하기 어려움 요소이지만, 교수가 학생개인들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다면 학생의 인격적 발전의 과정을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교수들이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목회자와 선교사 그리고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를 양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신학교의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위한 희생과 사명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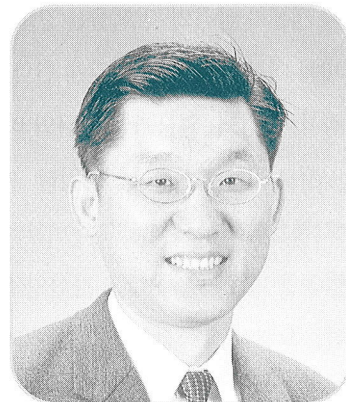
이렇게 목표-전략-평가의 세 단계를 반복하면서 부족한 것은 시정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방법과 전략들을 세워가면서 학교의 교육이 체계적이고 목표 지향적이며 건실한 교육이 되도록 노력해 갈 것이다. 이 일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교수진, 행정진, 학생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땀을 흘리고, 많은 분들이 기도와 사랑으로 후원을 해 주신다면, 힘든 고역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보람있는 일이 될 것이다.

묻혀있던 가능성들이 하나하나 발견되고 있다. 현재는 미국의 우수한 성경학교 연합체인 AABC의 기준에 볼 때 부족한 것이 있는 듯 하나, 본교는 가능성이 많은 학교이다. 학생들의 질이나 교수진의 실력 그리고 이사진을 비롯한 막강한 후원 그룹들, 무엇보다도 좋은 학교를 이루어 보고자하는 꿈과 열정에 있어서는 그 어떤 학교보다도 뒤지지 않는다.

AABC의 가입을 추진하면서 월드미션대학교는 강해지고 있다. 힘이 자라고 있는 것이다. AABC는 우리를 냉철하게 돌아보게 하였으며, 우리 속에 있는 잠재력을 발견하게 해주고 자신감을 심어 주었다. 우리 안에 있는 다듬어지지 않은 무한한 가능성들을 드러내주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할지를 알려 주었다. 목표와 방향을 제시해 주고 이를 어떻게 도달해야 할지 자극을 주고 도전을 주었다. 그리고 용기와 희망도 주었다. 인적자원이 풍부하고, 미국 대학들 속에서 우리의 독특한 사명이 있고, 세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숨은 실력이 우리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하여주었다. 월드미션의 가족들 모두가 좋은 학교를 이루어 보고자하는 꿈과 열정에 불타고 있다. 세계적인 학교들과 나란히 어깨동무를 하고, 저 넓은 지구촌을 누비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확신이 더해만 간다.

월드미션대학교의 Mission Statement를 만들면서

신선묵 교수
(본교 사무처장)

지난 2월에 플로리다주의 올란도에서 열린 AABC (Accrediting Association of Bible College) Conference를 다녀왔다. 학교의 행정 책임자들이 모임을 가지고 있는 컨퍼런스는 정기총회와 여러 가지 세미나로 구성되어있다. 본인도 본교의 임성진 목사님과 남종성 목사님과 함께 2002년 컨퍼런스에 다녀왔다. 작년 2001년에는 처음 참석하는 컨퍼런스여서 정신없이 다녀왔는데 이번에는 나름대로 우리 월드미션대학교를 생각하면서 다녀왔다. 특히 올해 컨퍼런스를 다녀오면서 가장 많이 생각한 것은 월드미션대학교의 미션에 관한 것이었다. AABC의 요구사항으로 본교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학교의 미션을 분명히 하고 그 미션에 따라 학교를 체계적으로 운영해 가는 것이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여러 관계자들에게 조사를 하여 월드미션대학교가 지향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있는 중이어서 컨퍼런스를 참여하는 동안 이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 곳에서 듣는 모든 세미나가 월드미션대학교의 미션이 무엇이 되어야 하며,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가를 생각하면서 듣게 되었다. 컨퍼런스를 다녀온 이후에 위원회가 열렸고 그 위원회에서 본교의 Mission Statement를 만들고 운영이사회에 최종 재가를 받았다. 월드미션대학교의 창립 때의 정신을 살리고 동시에 학교에 관계된 총장님이하 교수님들 이사님들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리한 Mission Statement는 다음과 같다.

"World Mission University, an Evangelical educational institution exists to equip Bible-centered, Mission-minded leaders for the Church and the world."

본 글에서는 본교의 미션을 분명히 만드는 귀한 작업에 참여한 한 사람으로써 본교의 미션에 대하여 나름대로 이해한 것을 적어보고자 한다.

첫째, 월드미션대학교는 성경중심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월드미션대학교에서는 많은 학문을 가르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써의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구원의 길로써, 또 신앙생활의 표준으로써, 사역의 기준으로써 성경을 교육한다. 성경을 바로

알고 사역 속에서 성경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줄 아는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성경 중심의 교육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 첫째는, 복음주의적인 신학을 가르치는 학교이다. 신학의 방향이 여러 가지 사조에 밀려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그 위에 세워진 복음주의 적인 신학을 가르치는 학교이다. 성경 중심의 교육이라는 것이 너무 단순하고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된다. 성경에 대한 주관적이고 단편적인 지식이 되어서도 안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 하나의 인간의 문서로 여겨서도 안된다. 역사 속의 인간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이해하여 겸손함과 근면함으로 말씀을 연구하여야할 것이다. 또한 이런 말씀을 바탕으로 한 신학 즉 복음주의 적인 신학에 뿌리를 내려야한다. 둘째로 성경 중심의 교육이란 성경에 대하여 자세히 가르치는 것이다. 구약 개론과 신약 개론과 성경의 각 책들을 강의한다. 본교는 성경에 대한 많은 과목들을 필수과목으로 개설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성경 자체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게 한다. 책별 연구뿐만 아니라 성경 연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성경 신학들과 더불어 성경의 배경사, 성경의 인물과 예수님의 비유등 본교의 커리 큘럼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실제적인 시간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사용되어지고 있는 가를 볼 수가 있다. 세째, 성경중심의 지도자를 교육한다는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성경을 스스로 연구하고 스스로 적용하고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훈련시킨다. 본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그들의 개인의 삶 속에서 또 사역 속에서 말씀을 바르게 연구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또 남에게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일꾼으로 만드는 것을 목적하는 것이다. 요약하면 성경적인 신학을 배우고 성경 자체에 대하여 배우고, 성경을 연구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통하여 성경 중심의 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다.

둘째, 월드미션대학교는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진 지도자들을 양성한다.

선교는 본교의 학교 이름에도 나타나고 동시에 후원교회인 동양선교교회의 중요 미션이기도 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위임하여주신 대 사명이다. 본교에는 현재 선교학 부전공제도가 있고 또한 앞으로 선교학과를 개설할 예정으로 있다. 그리고 창립 때부터 선교대학의 이름으로 많은 선교사들을 배출하여 세계각지에서 선교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선교사를 양성하는 것은 본교의 창립 이래에 중요시되는 목적이다. 그런데 월드미션대학교는 단지 해외 선교사를 교육시켜 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모든 기독교의 지도자들을 선교적인 관점으로 살고 사역하게 한다. 선교는 단지 해외의 오지에 나가있는 선교사들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과제이다. 우리 기독 지도자 모두가 어떤 사역지에서 어떤 종류의 사역을 하고있던지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져야한다. 넓은 의미의 선교는 단순히 해외선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 모든 기독인에게 부여된 사명인 것이다. 모든 기독인들이 선교의 관점에서 살아야할 사명이 있다. 그러기 위하여 첫째, 바른 선교 신학을 정립해 주어야한다.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그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우리 모든 기독인들이 선교사임을 알아야한다. 둘째로, 모든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 속에서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이 있어야한다. 목회자로써 혹은 평신도 지도자로써, 혹은 해외 선교사로써 우리가 각자의 현장 속에서 감당해야 하는 선교의 과업들이 있는 것이다. 교회를 개척하는 전략과 교회를 성장시키는 전략들, 다양하고 효과 있는 전도의 방법들과 지역교회가 해외선교사들을 어떻게 후원하는 가의 문제들, 또한 단기선교 프로그램을 통하여 선교사 지원생들을 모으는 일과 같은 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또한 신학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할 때도 항상 선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여 월드미션 졸업생들의 삶과 사역의 모든 면에 선교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있게 하

는 것이다. 셋째로는, 타문화선교사들을 교육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말한바와 같이 본교의 창립초기부터의 관심이었다. 모든 기독교 사역자들이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져야하지만 특별히 아직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지역과 해외 여러 곳에 교차문화사역(Cross-Cultural Mission)을 감당할 사역자들을 양육하는 것이다. 교차문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복음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복수 문화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아야한다. 타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문화적인 갭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문화인류학, 커뮤니케이션, 상황화 신학, 성육신의 신학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선교적 마인드의 지도자란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성취해 나아가시는 것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할 역할을 이해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실제적인 전략을 배우며 특별히 타문화 속에서의 효과적인 사역을 준비하는 것이다.

셋째, 월드미션대학교는 교회와 세계를 위한 지도자들을 양성한다.

첫째, 월드미션대학교는 우선 교회를 위한 전담 사역자들을 양성한다. 지역 교회의 목사와 전도사, 해외 선교사, 교회 속에서 다양한 종류의 전담 혹은 파트타임 사역자들을 양성한다. 본교를 졸업하면 세계복음주의 연합회를 통하여 목사안수를 받고 목회지 혹은 선교지로 나아갈 수 있다. 또 많은 교단에서 본교 졸업 후에 소정의 교단 필수 과정을 마치고 안수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전담 사역자로 사역하기 위해서는 실제사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목회 기술을 습득해야한다. 그러기 위하여 목회학, 예배학, 실천신학, 영성 신학, 전도학등의 내용들을 습득해야한다. 둘째, 월드미션대학교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세상 속,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 사회 속에서 일하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활동하는 평신도 지도자를 양성한다. 먼저 평신도들이 교회 속에서 효과적인 평신도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이다. 현재 평신도 성서대학과 선교대학등의 자격증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성서학과 이외에도 여러 학과를 개설하여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전문인들을 양성하여 사회 속에서 영향을 끼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하여 학교에서는 기독교 음악과 기독교 교육학과 등의 과정들을 개설하기 위해 연구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월드미션대학교는 교회와 사회를 위한 일꾼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셋째, 월드미션대학교는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기관이다. 그들이 교회 속에서 전담 사역자가 되던지 아니면 사회 속에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평신도가 되던지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지도자란 어떤 지위를 차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효과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효과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이다. 기독교의 지도자는 섬기면서 이끄는(serve and lead) 지도자이다. 섬기되 영향력을 주고 영향력을 주되 섬김의 방식을 통해서이다. 이를 위하여 지식(Knowledge)의 전달과 더불어 사역자로써의 인격(Character)을 갖추게 하고 실제 사역의 현장 속에서 사역을 실행할 수 있는 사역의 다양한 기술(Skill)을 갖추도록 하게 한다. 이와 더불어 자신의 소명(Calling)을 분명히 깨닫도록 도움을 주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Gifts)를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은사에 맞는 역할을 찾아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월드미션대학교는 무엇보다도 실제 사역의 현장 속에서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역자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사역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관점에서 교육을 실행하며 사역지에서 일하면서 교육을 받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학생들의 사역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상에서 월드미션대학교의 Mission Statement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보았다. 그러면 왜 이런 Mission Statement가 필요하고 또 어떻게 우리의 학교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우선 우리가 기억해야할 것은 Mission Statement는 인가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이지만 남을 위하여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사역을 위하여 만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션 진술서를 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효과적으로 사용해야한다. 학교교육을 이 미션에 맞추어서 방향성 있게 진행하는 것이다. 학교의 잘 보이는 곳에 이것을 전시하여 학생들과 교수들 그리고 방문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 학교에 주신 목적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해야한다. 학교의 Mission Statement의 기초 위에 교육 목적을 설정하고 각 학과별 그리고 각과목의 교육목적을 설정한다. 모든 학과목이 이 Mission Statement에 연관하여 어떤 점에서 공헌을 하는지를 분명히 해야한다. 교수들이 한 학기의 교안을 작성할 때에 학교의 미션과 본 과목이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한다. 그 외에서 학교의 행정 운영에 있어서도Mission Statement에 집중하여 필요 없는 행사를 정비하고 중요한 행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미션을 이루기 위한 실천적인 방안들을 연구해야한다. 둘째, 이렇게 학교의 미션을 정리하고 그것에 따라 학교를 조직하고 운영해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는 정기적으로 학교의 미션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감당하고있는지를 평가하는 체계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바른 미션을 갖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결실이 있어야한다. 아무리 좋은 구호를 외쳐도 구체적으로 결실이 없다면 헛된 수고이며 또한 결실이 있는가를 우리가 막연히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비교해야한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평가작업 (Assessment)을 정기적으로 한다. 졸업생과 재학생, 교수님들과 학교행정 직원, 도서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통하여 학교의 교육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가를 파악해야하고 그것이 또 학교의 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반영되어야한다. 그런데 바로 이 평가 작업의 기준이 학교의 Mission Statement인 것이다. 학교의 교육을 바로 하고 있는가를 여러 가지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학교의 Mission Statement가 원래의 교육 목적이요 비젼이기에 이것에 기준하여 평가해야 하는 것이다. Mission Statement가 없다면 사람마다 기분에 따라 평가할 것이고 그 평가가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이다. 분명한 Mission Statement 가 있을 때에 그것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월드미션대학교의 미션 진술서가 만들어지고 운영 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개인적으로 우리 학교의 미션진술서를 만든 것을 기쁨으로 생각한다. 먼저 학교의 방향을 설정하는 귀한 작업에 참여했다는 점이다. 학교의 부분적인 것들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방향이 바로 설정되어야하는데 이 일에 참여한 것이 참으로 기쁨이었다. 둘째로는 개인적으로 나의 개인적인 Mission Statement와의 연관성이다. 본교에서 일하면서 나 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왜 인도하셨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개인적인 미션과 이 학교의 미션이 관계가 있는가? 내가 나의 삶의 미션에 충실한 것이 학교의 미션에 도움이 되고 학교의 미션을 위하여 열심히 하는 것이 나의 개인적임 미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다. 마지막 셋째로는 Mission Statement를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귀한 교제와 팀 사역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다. 함께 협력하여 일한다는 것은 늘 즐거운 일이다. 특히 학교의 미션을 만드는 것처럼 중요한 일은 함께 해야한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일하는 즐거움을 누렸다. 본인이 소망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미션이 앞으로도 우리학교의 뼈가되고 살이 되어서 귀한 결실이 맺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Kingdom of God
(ἡ βασιλεια Τοῦ θεοῦ)

김진광 교수
(본교 성경신학 및 실천신학 교수)

I. 머리말

동양선교교회의 선교하는 교회, 교육하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로서의 3대 사역의 모토는 마태복음 4:23절과 9:35절의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에 근거를 두고 있다.1) 이것은 예수님의 3대 사역으로서 Teaching Ministry, Preaching Ministry, Healing Ministry를 말함인데 이중 '하나님의 나라' 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중심적인 메시지' 이었다는 사실이다. 즉 하나님 나라의도래(到來)라는 이 주제는 예수님의 선교에 있어서 중심적인 것이었다.2) 필자에게 있어서 신학의 여러 주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OMC의 3대 중점사역과 Fuller신학교에서 석사 과정(M. Div 1984-1987) 중에 George Eldon Ladd 교수의 하나님 나라에 관한 책들을 통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지금도 특별한 관심 속에 사역의 초점도 하나님 나라에 우선하고 있다. 예수님 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의 첫 외침도 마3:2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이었다. 그러나 세례요한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당시 예수님 자신이 수행해 갈 사역을 밝힌 것으로서 두 메시지의 근본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최초의 메시지가 마4:17절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는 말씀이었음을 볼 때 우리들의 신학, 사역, 선교등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관한 것들이어야 하고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들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 나라 전파를 위한 사역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II. 하나님 나라의 개념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 ἡ βασιλεια Τοῦ θεοῦ)와 하늘나라 (kingdom of Heaven : ἡ βασιλεια Τῶν ουρονῶν)는 동의적인 표현들로서 둘 다 동일한 개념을 지니고 있다.3) 마태는 '하나님 나라' 의 어휘보다 '하늘 나라' 라는 어휘를 즐겨 사용한 이유는 그의 복음서가 이방인들보다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저술되었기 때문이고 4) 또한 마태 자신이 복음서 저자들 중에 가장 유대적인 인물이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래서 마태는 습관적으로 '하늘나라' 를 주로 사용했다.5) '하늘나라' 의 표현은 히브리어 Malkuth Shamaim을 문자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사용하기를 꺼려했던 유대인의 습관과 관련이 있다.6) 이 개념은 구약 사상에 깊이 뿌리박고 있으며 공관 복음에 기록된 예수의 가르침은 거의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들이다. 성경적 의미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범위나 영역만을 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피조계 에 대한 하나님의 왕권적 통치, 즉 하나님의 주권을 말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왕적 통치는 세 가지 관점을 지니고 있다. 첫 번째로는 '영원한 실재' 로서 이해되고 두 번째로는 '인간이 그 나라를 받아들임으로서 이 땅 위에 분명히 나타나는 것' 이며, 세번째로는 '미래에 그 완성이 기대되는 것' 으로서 나타난다. 이 가운데 마지막 관점을 일컬어 종말론적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 라고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권(his Kingship), 하나님의 통치(His rule), 하나님의 권위(His Authority)이다.7)

III. 하나님 나라의 의미

A.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구약에는 '하나님 나라' 라는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8) 가장 후기에 '여호와의 나라' 라는 형태로 단 한번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대상28:5) 그러나 '나라' 라는 용어가 하나님과 관련해서 사용된 경우가 간혹 있는데 시45:6과 145:11, 13절에서 '당신의 나라' 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시103:19절과 145:12절에서는 '그의 나라' 가 '내 나라'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이상에서 언급된표현들 모두 히브리어로는 מְלוּכָה : 말쿠트 이다. 욥1:21절과 시22:28절에서는 '나라'는 '여호와의 것'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이 두 경우의 히브리어는 מְלוּכָה : 멜루카 이다. 또 대상 29:11절에서는 '여호와여 나라가 당신의 것이니'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경우에서의 히브리어는 מַמְלָכָה : 마믈라카 이다. 이상에서 언급된 "나라"에 대한 히브리어들이 하나님께 적용될 때는 모두가 '왕권', '주권', 혹은 '왕적 지배'라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B.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공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와 '하늘나라' 라는 표현이 매우 자주 나타난다. '하늘나라'라는 표현은 마태복음에만 국한되어 있는데 유대적 기독교의 특성을 간직하고 있는 마태복음은 '하나님' 대신 '하늘'이라는 완곡한 표현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예수께서는 '하늘나라' 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통상적으로 사용하셨던 것 같다. 공관복음서에 나타나는 그 밖의 동의적 표현들로서는 '당신의 나라'(Thy Kingdom) (마 6:10, 눅11:2), '그의 나라'(마6:33, 눅12:31), '천국'(마 4:23, 8:12, 9:35, 13:19,38, 눅12:32), '자기 아버지 나라'(마 13:43), '내 아버지의 나라'(마26:29) 등으로 나타난 '나라'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며 그 밖의 몇몇 구절에서는 나라가 '인자'(마13:41, 16:28) 혹은 '예수 자신'(마 20:21, 눅1:33, 22:29-30, 23:42)에게 속한 것으로 말해지고 있다. 요한 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두 차례 (요3:3,5)나타난다. 사도행전에서는 여섯 차례, 바울 서신에서는 20여회 발견된다. 이상에서 언급된 신약에 나타난 '나라'(βασιλεία : 바실레이아)이다. 이 단어의 기본적 의미는 그에 대응하는 히브리어 및 아람어 낱말들이 기본적 의미와 마찬가지로 '왕권' 혹은 '주권적 지배'이다. 특이한 것은 (βασιλεία : 바실레이아)는 히브리어나 아람어보다 의미가 확장되어 '왕토', '왕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영토'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IV.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기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는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지상에 임했다는 학설, 둘째는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마지막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미래의 사건으로 보는 학설, 셋째는 하나님 나라가 지상에 이미 임한 것은 사실이나 그 완전한 성취는 마지막 때에 이루어진다는 견해이다.

A. Albert Ritschl and Adolf Von Harnack

Ritschl은 당대에 '하나님 나라'의 신학적 의미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 개념의 연구를 촉진 시키는데 공헌을 한 학자이다. 그는 이 개념을 역사에서 끌어내어 인간 세계의 활동 원리로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다.9)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 라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서 마12:28절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는 구절을 통해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만을 강조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야로 파악하지 않고 하나의 도덕적 교사로 생각한 것이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주장하여 결국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인 성격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이들의 주장에 있어서 오류는 그리스도를 단순한 도덕적 선생으로만 본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 성격을 나타낸 말씀들을 철저하게 무시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인간의 노력이라는 요소를 부각시킨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Ritschl은 '하나님 나라를' 비 종말론적으로 해석하는데 주력하여 예수님의 교훈 중 종말론의 중요성을 극소화시켜 버렸다. 그는 '하나님 날'의 개념을 그리스도의 구속과 사랑으로 영감된 행동을 통하여 발휘되는 인간성의 도덕적 기구로 정의 했다.10)

B. Johannes Weiss and Albert Schweitzer

바이스의 견해를 좀더 철저하게 발전시킨 사람이 슈바이쳐이다.11) 그는 바이스의 견해에 대부분 동의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유대 묵시 문학에서 근원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철저한 미래성을 강조하였다. 그 근거로서 마10:23절의 예수가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마치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으로 확신했으나 제자들이 돌아 올 때까지 그 나라가 임하지 않자 그 나라가 '연기'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는 자신이 직접 고난을 받아 그 나라가 임하게 만들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특히 A. Schweitzer는 '철저종말론'(consistent eschatology)을 주장하며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성격을 배격하고 있다.

C. C. H. Dodd

다드는 슈바이쳐의 종말론적인 해석을 강력히 비판하고 미래적인 종말론의 개념을 재 해석하였다.12) Dodd는 '실현된 종말론'(realized eschatology)을 주장하며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선지자들이 대망한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 완전한 성취는 미래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가 말한 '미래'라는 용어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질 어느 한 시점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막연한 훗날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마12:28절과 막1:15 절, 그리고 눅11:20절을 들어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분명히 한 것은 훌륭한 점이나 동시에 미래성을 언급한 성경의 구절들을 유대 묵시 문학의 영향이라고 하여 배제시킨 것은 큰 잘못이었다고 평가된다.

D. Geerhardus Vos

Vos는 1930년에 출간된 그의 명저 'Pauline Eschatology'에서 부활, 구원, 칭의, 성령의 4가지 개념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 구원론과 종말론과의 관계를 명쾌하게 설명하였다. 첫째로 '부활'은 먼저 그리스도에게 일어났는데 이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작업이었으므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성취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은 후에 다시 부활하여 최후의 심판을 맞아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영생에 들어가게 되므로 이는 하나님 나라의 완전 성취라고 말할 수 있다. 둘째로 '구원'의 개념인데 세례는 구원받은 징표(Sing)이며 구원의 완전한 성취는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이다. 셋째로 '칭의'의 개념으로서 성도가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은 현재의 일이지만 그것으로 구원이 완전히 성취된 것은 아니므로 영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도달해야만 하고(엡2:21-22, 4:13, 빌3:12) 또 그것은 미래의 사건이 된다. 마지막으로 '성령'인데 신자가 성령과 함께 하는 현재의 생활은 곧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과 함께 살게 될 것을 보여 주는 모델이 된다. 이상과 같은 네 가지 개념은 하나님 나라가 현재성과 미래성을 동시에 지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사역 초기에서뿐만 아니라 산상수훈에 나타난 팔복이나 천국 비유 같은 교훈에서도 의미심장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나라의 임하심은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된 대 사건이라는 것과 그의 교훈에서 특출한 주제임을 생각할 때 그 중요성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13)

E. Oscar Cullmann

그는 독특하게 '구속사.(Salvation history)라는 개념을 강조하였다. 구속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역사적인 측면에서 파악한 개념으로서 그것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리고 부활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고 그 구속의 역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으며 마지막 날에 구원 사역을 완전히 성취하시기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과 또한 앞으로 완전히 성취될 것 사이의 긴장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였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already) 임하여 그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은 '아직 아니'(not yet) 성취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 야만 한다'는 것이 바로 긴장의 논리이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벌써 임했고 앞으로 완전히 성취될 사건임을 분명히 하였다. 위의 학자들 견해 가운데 가장 성경의 사상과 일치되는 것은 '보스'(G.Vos) 와 '쿨만'(O. Cullmann)의 견해라 하겠다.

V. 맺음말

하나님의 나라는 단 한번의 통일성 속에서 준비와 완성이라는 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한 하나님 나라의 임함과 또 오지 아니함의 이중 구조는 충분히 설명되었다. 이제는 O. Cullmann이 지적한 바대로 그 사이의 긴장 상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고 어떤 모습을 보여야만 하는가 라는 점이다. 신앙적인 견지에서 이 상태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성취를 바라보면서 영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결론 지을 수있다. 즉 성도에게 있어서 현재와 미래는 모두 중요하며 어느 한 편으로 치우치는 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이 하나님 나라의 이중적 구조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핵심이 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각주

1. 임동선, 심는대로 거두리라,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6). P. 321

_____. 땀은 흘러도 기쁨은 샘물처럼, 새 계명의 사랑, 환난 날의 신앙, 회고와 전망등을 참고하라.

2. G. E. Ladd, The Gospel of the Kingdom, (Grand Rapids: Eerdman, 1978), P. 14.

3. '하나님의 나라'는 마가복음에 14회, 누가복음에 34회, 마태복음에 4회가 나타나 있고 '천국'이라는 단어는 31회가 마태복음에 나타난다. 전경련외, 신약성서 신학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63), P. 89.

4. 이상훈, 신약개론, (부천: 대한기독교서회, 1963), P. 53.

5. G. E. Ladd, 신약신학, 이창후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6), P. 88.

6. H. Ridderbos, 하나님 나라, 오광만 역 (서울: 엠마오, 1989), P. 55.

7. G. E. Ladd, op. cit., P. 21.

8. 정훈택,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실존,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3), P.11

9. G. E. Ladd, 하나님 나라에 관한 중요한 문제들, 신성종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2), P. 24.

10. C. E. Braten, 역사와 해석학, 채위 역, (서울: 기독교서회, 1973), P. 208.

11. The Mystery of the Kingdom of God (New York: Schocken, 1914), 참조할 것

12. The Parables of the Kingdom rev. ed. (New York: Scribneis, 1961), 참조

13. G. Vos, 하나님 나라, 정영숙 역 (서울: 한국개혁주의 신행협회, 1992), P. 10.

창세기 22장에 나타난 지혜 연구

편요한 교수
(본교 구약학 교수)

@ 어휘의 특징

1. 지혜의 범주의 하나이며 가장 기본적인 "알다"라는 단어가 창세기 22장 본문의 이야기를 통일성 있게 묶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알다"라는 말을 개념화하면 이는 "지식"을 말한다. 그런데 이 지식은 대상이나 내용을 필요로 하고 있다. 즉, 무엇을 안다는 말인가? 이 지식의 대상은 무엇인가? 또한 이 지식의 소유자와 그 대상의 관계는 무엇인가?

2. 무엇을 안다 거나 무엇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무엇을 알지 못한다거나 무엇에 관한 지식이 없다는 이 전의 상태를 전제하고 있다. 또한 무엇을 안다는 지식의 결과는 그것을 알지 못했던 과거의 상태와 극적인 대조를 이룬다. 이 대조의 결과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나 질 수 있다.

3. 안다는 지식은 심리학적으로 혹은 인식론적으로 "보고" "들은" 경험의 결과로 얻어진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지식은 미숙한 지식이거나 불완전한 지식이다.

4. "안다는 것"은 지혜와 관련된 다른 종류의 어휘들과 함께 개념화되거나 추상화된 형태가 아닌, 매우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삶의 언어라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앎"은 과연 어느 정도의 지식을 말하는 것일까? 그 지식의 깊이는 어느 정도인가?

@본문의 내용

1. 문학의 형식상, 창세기 22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사건을 이야기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던지게 되는 합법적인 질문은 왜 그리도 많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단 말인가! 물론 "시험"이라는 단어가 비로소 사용된 것은 창세기 22장에서지만, 그러나, 적어도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세밀히 읽어온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이 지속되는 위기 속에도 끊임없이 시험을 이겨 왔다는 사실을 간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는 땅으로 향했으며, 기근과 전쟁을 치러야 했으며, 잉태하지 못하는 아픔과, 파괴, 질투, 악, 등등을 겪어왔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예들은 다만, 시험이라는 단어로 언급되지 않았을 뿐이지 시험에 준 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아닌가! 그런데 이러한 무거운 짐을 진 후에 또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온 전혀 다른 형태의 시험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

해야 할까?

2. 내용적으로 본문은 하나님의 명령 (22:1b-2)을, 아브라함이 순종(3-10)하고, 하나님이 본문에서 제기된 긴장을 해소시키는 결론(11-18)에 도달하며 이야기가 끝마쳐지고 있다. 그리고 이 세 단락은 "시험"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시험한다는 말인가? 어떤 시험을? 왜?

3. 이 이야기에서 시험을 하는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칭이 흥미롭게도 정관사를 동반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창세기 1-21장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은 강조 용법이며, 지금까지 이해해왔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대조는 하나님에 관한 기존의 이해를 깨는 전혀 생소한 이야기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

4.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하나님이 그의 삶에 그리고 사람의 행사에 깊숙이 관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하늘에서 사람의 삶을 관망하시는 자가 아니라, 사람의 삶에 깊이 들어와 간섭하시는 분인 것이다.

5. 그런데 시험의 내용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의 약속을 송두리째 위협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었다. 즉, 그의 하나뿐인 독생자, 그가 사랑하는 자를 번제로 바치라는 것이었다. 이는 종종 성서 해석에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시험하기 위함인 것으로 단순히 이해되어왔다. 하지만, 신학적으로 이러한 시험의 시도는 하나님 자신이 하신 약속 (땅과 자손에 대한 축복) 을 아브라함의 어깨 위에 올려놓음으로써 하나님 자신의 신뢰성을 위협할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엄청난 도전을 간과하고 있다.

즉, 이러한 시험의 실패가 가져올 수 있는 결과는 성스러운 이야기에 끝을 예고 할 수도 있다는 심각성과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있는 아브라함의 시험의 내용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러한 심각한 종류의 시험을 그의 어깨 위에 그렇게 쉽게 올려놓고 있는가? 어떤 의도로? 독자들은 이러한 심각성을 자신들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6.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은 사람의 동반자로서 주로 사람을 이롭게 하는 도덕적인 하나님, 죄를 벌하시지만, 또 다시 은총의 통로를 열어 놓으시는 좋은 하나님으로 묘사되어 왔다.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분이시며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었다. 그런데 본문은 이러한 우리의 이해에 쐐기를 박고 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고정 관념의 틀을 깨고, 하나님을 현재를 보장하거나 사람의 안전을 도모하는 분이 아니신 사람을 위협하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하나님은 정당한가?

7. 이삭 (그가 웃었다) 이라는 아들을 바치라는 것은 그 아들을 낳게 한 하나님 자신 또한 유쾌한 사건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비웃음이 이제 아이러니 하게도 울음으로 바뀔 수 있는 순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둘 다 놓여 있다. 왜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러한 상황을 야기하지 않으면 안되게 했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기존의 우리의 사고의 틀을 깨려고 하시는가? 왜 기존의 하나님에 대한 긍적적인 생각을 무너지게 하는 것일까?

8. 다시 말하지만, 시험은 소명이 아니다. 시험은 부르심이 아니며, 파송도 아니다. 시험은 시험일 뿐이다. 시험은 종종 엄청난 대가를 치르도록 요구한다. 긴장을 야기시키기도 하며 그 대상을 위기로 몰아 넣기도 한다. 누구도 시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시험의 결과는 시험을 치르는 사람을 과거에 머물게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미래에 다리를 놓게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그 중요성이 결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9. 분명히 하나뿐인 아들을 보호하기 보다 죽음을 준비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본문이 제기하는 하나님과 그에 대한 종교성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어떤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라는 문제는 믿음의 대상의 신뢰성에 의해 종종 판가름되곤 한다. 그런데 죽음을 준비시키라는 하나님의 목소리는 신뢰할 만한 목소리인가? 도덕적인가? 이야기는 그러나 이러한 불합리한 사실에 대한 비판적인 관망보다는 성급한 응답과 순종, 즉, 죽음을 준비하는 쪽으로 재 빨리 전개되고 있다.

10.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하나님이 가라하신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그 둘 간의 애착과 분리의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둘이 함께 걷지만 사실 떨어져 있으며, 떨어져야 하지만, 떨어질 수 없는 둘의 관계를 이야기는 극적으로 전개해 가고 있다. 그리고 결국 "타인성"의 요구가 종교성과 결합되어, 분리 될 수 없는 하나된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을 합법화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분리의 결과로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11. 이들이 모리아 산을 향해서 걷는 동안 여러 형태의 "안다"는 사실과 "알지 못한다"는 즉, 지식의 현존과 지식의 부재가 이 이야기의 전개 상황을 극도로 긴장시키고 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에 대한 원천적인 의도를 모르고 있다. (우리는 아는가?) 또한 하나님도 본문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전개된다.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삭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혀 알지 못할 뿐 아니라, 그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여튼 종교는 도덕을 초월할 것인가?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 산으로 향하는 아브라함의 종교성은 그 자체가 종교의 요구이기에 합리화 될 수 있단 말인가?

12. 다시 말하면, 종교성을 제외한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한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돌아올 것이라"는 말은 사기이며 기만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저자도 알지 못하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이야기의 결론을 혼자 알았다는 것인가? 그런 결론을 안다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며, 이러한 일련의 복잡한 과정을 필요로 한단 말인가?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을 보호하기보다는 파괴하는 데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13. 이삭의 정직한 물음은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보소서,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 제를 드릴 양은 어디 있단 말인가? 그러나 이러한 순진한 대답은 아브라함의 또 다른 손에 이제 곧 그를 향해서 휘둘러질 칼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결과로 빚어졌다.

14. 이런 측면에서 본문에서 보여지는 종교성이나 믿음은 거의 "테러"에 해당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애기치 못한 시험의 종류와 인간 파괴의 현장을 본문이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15. 제단을 만들고 나무를 정리하고 이삭을 올려놓고 아들을 찌르려고 칼을 빼어든 장면의 이이야기가 추상화된 개념의 이야기가 아니며 실재, 사람을 죽이는 역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임을 실제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야기의 아이러니, 매서움, 긴장이 극도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와서 순진하게 "번제를 위한 양이 어디 있냐고" 물었던 이삭 자신이 번제의 희생물로 변하고 있다.

16. 바로 이때 하나님은 사건에 직접 간섭하고 있다. 이는 하나님이 사건이 전개되는 동안 숨어 있었다거나 부재했었다는 의심을 제거한다. 즉, 하나님 자신이 사건의 해결자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본문은 사건을 일으키시고 긴장을 근본적으로 야기한 분이 하나님이기에 하나님 만이 문제의 해결자일 수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테러를 제거하시며, 긴장을 이완시키고 있다. 이는 무엇을 함축하는가? 사건이 전개되는 내내 하나님은 자신을 물러나 있게 했다. 그리고 적절한 때에 그 모습을 드러내신 것이다.

17. 그런데 이렇게 사건을 해결하고 아브라함의 손을 막을 것이었다면 애초에 시험은 왜 필요 했단 말인가? 그의 순종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러한 해석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본문에 관한 이해와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결국 애초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단 말인가?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얻기 위함이었나? 또한 시험의 의도는 무엇이었는가?

18. 12절에서 본문을 통일성 있게 묶는 하나님의 음성이 제시되고 있다. 즉, 하나님이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된 것이다. 그가 알지 못했던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 지식의 대상은 아브라함 이었으며, 지식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이었다. 이러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시험을 의도한 것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지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하나님은 이러한 지식을 요구했을까? 무엇 때문에?

19.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떨리는 신비로움의 면전에서 경외감과, 테러, 그리고 경건성을 구체화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식은 다른 종류의 어떠한 지식도 열등하게 만다는 것이다.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그로 하여금 그가 가진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지식까지도 열등하게 만들었다. 즉, 그의 살아 계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옛적의 지식조차 무력화시킨 것이다.

20.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그 어떤 다른 지식으로부터 자유 하게 했으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그로 하여금 애착과 분리라는 감정의 두 끝을 오가게 했지만, 결국, 아브라함과 이 삭 둘을 모두 살려내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그가 이러한 지식을 표현하기 전까지 가지지 못했던 또 다른 지식, 즉,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비전을 갖게 한다. 즉, 이 지식을 표현하기까지 그에게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난 것이다. 즉, 그가 준비한 이삭 대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희생물을 제사로 드리게 된 것이다.

21. 이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의 결과로 "번제에 쓰일 양은 어디 있느냐?" 이삭의 순진한 질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라는 아브라함의 거짓이거나, 불완전해 보였던 그의 지식은 완전한 지식으로 확증되게 된다.

22. 창세기 22장의 본문에 소개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식"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이러한 지식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에게 부재했었음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즉, 하나님의 시험은 이러한 지식의 결핍을 공격한 것이다. 이러한 공격은 이러한 지식을 하나님이 기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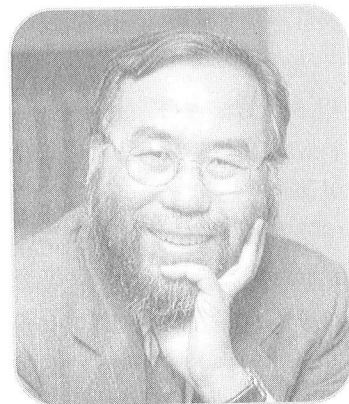
23. 그런데 두려움은 왜 필요한가? 첫째는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이고, 둘째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가 더 두려울 수 있는 것이다.

24.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서로 상충적인 개념이 아니다. 물론 지식은 이성에 바탕을 둔 반면에 두려움은 감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둘은 서로 상호 보완적이라는 사실이다.

25.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구원과 파괴의 역사적인 사건이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임재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모르기 때문에 가능하다. 지혜는 바로 이것을 깨닫는 것이다. 이러한 지식은 우리를 보호하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는데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선과 악의 차이를 깨닫게 하는 데로 우리를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바울의 예수 전승의 사용과 그 해석학적 의미

김세윤 박사

오늘날 신약학의 중요한 주제중의 하나는 예수와 바울과의 관계성이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알았는가? 더 나아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는가에 대한 질문과 토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 두 가지 견해가 대립을 이루고 있다. 하나의 견해는 바울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몰랐거나 따르지 않았다는 견해와 또 다른 하나의 견해는 바울은 예수 전승에 충실하여 자신의 신학적 사고를 전개해 나갔다는 것이다.

전자의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예수와 바울의 단절성을 주장한다.

1) 예수의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반하여 바울의 가르침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음을 가르치고 있으나 바울서신서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8번 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2) 랍비의 전통에 익숙해 있던 바울이 자신의 스승이라 할 수 있는 예수의 가르침을 직접 인용하지 않는다. 즉 비유나 가르침 등을 자신의 글 속에서 인용하고 있지 않다.

3) 바울은 역사적인 예수를 통해 직접 배우거나 함께 있지 않았다.

이런 내용에 근거해서 독일의 신학자 W. Wrede는 '바울은 예수의 삶에 관심이 없었다'라고 단정을 한다. 바울이 예수에 대한 환상을 보았는데 이 환상을 바탕으로 하여 헬라세계의 신비주의에 영향을 받아 바울의 신학이 혼합되었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종교를 창출해 냈다고 보는 것이다. 예수는 이름만 빌려주고 바울이 기독교를 창시했다고 보는 것이다.

더 나아가 R. Bultmann과 같은 신학자는 바울이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한다. 단지 신앙의 그리스도만 알았는데 이 신앙의 그리스도는 케리그마에 근거한 선포된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즉 역사속에 나타나신 예수, 땅위에서 사역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바울은 이런 신앙화된 그리스도를 헬라세계에 접목시켜 새로운 종교를 탄생 시켰다는 것이다. 즉 예수는 역사속에 존재하기는 했지만 그분의 사상이나 사역에 기초해서 기독교를 세운 것이 아니고 예수라는 이름만 빌려와서 나름대로의 종교를 창설했다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예수는 부호(cipher)에 불과 한 것이

다. 예를 들면 어떤 교통표지판이 있을 때 이것을 부호로 하여 때로는 '멈추라,' 때로는 '조심하라'로 약속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Bultmann의 견해에 의하면 예수님은 단지 부호가 되어서 사람들이 그 부호에 의미를 부여하고 뜻을 정하는 것이다. 케리그마 즉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말하지만 이것은 역사적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가 선포한 하나의 신화적인 이야기로 취급한다. 예수라는 신화속의 형상은 있지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모습이 없다. 이런 사상은 실존주의 철학과 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미끼를 주었다. 즉 이들이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예수라는 분이 존재했다는 사실이지 이 분이 어떻게 존재하고 어떤 분이셨는가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존재하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이 언뜻 생각하기에 신앙적이고 매력적으로 들릴지 모르나 예수님의 역사성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생각인 것이다.

사실 이런 실존주의 사상에 의거해서 남미의 해방신학, 한국의 민중신학 등이 탄생하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다. 지금 사회의 정의가 무너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무시되고 소외당하며, 민중이 억압받는 상황에서 예수라면 어떻게 하였을까, 이런 상황속에서 예수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생각하다가 예수는 해방자라든지 가난한 자들 편에 있는 분이라든지 등 자신의 필요에 의해 예수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미신화 하는 것이다. 이런 사상들은 우리가 철저히 경계를 해야 한다.

학계에서도 이렇게 심각한 불트만의 역사적 회의주의에 대하여 의의를 제기하고 역사적 예수연구에 대한 재 탐구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들 중에는 불트만의 영향력있는 직계제자들도 상당 수 있다. 재 탐구 운동들은 불트만의 신화적 예수를 상당히 수정해 주었다. 역사적 예수연구는 소위 1990년대 시작된 제3탐구 운동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연구되고 있다.

이런 역사적 예수 연구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예수의 역사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특별히 예수와 바울의 연속성을 강조하기를 원한다. 바울의 정신, 바울의 삶의 양식, 가르침은 예수님과 일치하고 있다. 고전11:1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 받는 자 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 받는 자 되라 (Be imitators of me, as I am also of Christ)"라고 말하고 있다. 바울은 스스로 이렇게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고 그의 명령들을 존경하고 있다 (고전 7:10-16, 25; 11:23-26).

그러면 왜 바울의 경우 예수님이 가르친 하나님의 나라와 교훈들이 표면적으로는 나타나 있지 않은가?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들로 정리할 수가 있겠다.

1)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도적 복음으로 대치 되어져야 했다. 구속사적 관점이 바뀌어진 것이다. 정확히 바울신학 즉, 그의 기독론과 구원론의 중심에서 예수의 말씀/가르침들은 인용되지 않으나, 오히려 여러 기독론적이고 구원론적인 언어로 재현 되어졌다.

2) 예수님의 말씀의 직접적인 인용이나 내용이 나오지 않는 것은 신약에서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예수 전승의 명확한 진술은 복음서에서만 발견되어지고 복음서들은 오직 예수 전승만 포함 한다. 그리고 다른 신약서들 (사도행전, 서신서들, 그리고 계시록)은 예수 전승을 담고 있지 않다. B. Gerhardson은 이런 현상에 대하여, 실재하는 구체적인 예수 전승은 초대교회에서 독립적인 존재로 취급되었으며 하나의 독특하고 성스러운 전승으로 취급되었기에 복음서 외의 다른 곳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다.

3) 만약 바울이 그의 복음 또는 그의 윤리적 가르침의 진리를 증명하기 위한 논쟁에서 예수 전승을 사용하였다면, 그에 대한 그의 언급들은 숫적으로 더욱 많았을 것이고 정확한 인용의 형태를 띄고 있었을 것이다. (cf. 롬14:4; 고전7:10f.; 9:14; 갈 5:14; 6:2). 그러나 바울은 복음의 진리에 대한 논쟁을 그리스도의 사건에 근거하였다. 즉 예수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리스도적 행위 (죽음과 부활)에 근거하였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행위가 그의 가르침에 포함된 약속의 성취였기 때문이다. 바울에 있어서 예수는 우선적으로 교사로서가 아니라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죽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로서 중요성을 지닌 분이었다. 그러므로 바울에 있어서 예수의 의미는 부활하신 주로서 랍비나 또는 철학선생이 그의 제자들에게 갖는 의미와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4) 변화된 상황을 생각해야 한다. 바울은 그의 이방인 교회에서 유대 신봉자들이나 열광주의자 들과의 다툼에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예수의 구체적 말씀 들을 거의 발견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로서 바울은 주의 가르침을 나타내야 하였음으로, 그는 그것을 그의 자신의 언어로 재설명하였는데 가끔은 예수의 구체적 말씀들에 관하여 암시하거나 또는 상기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재설명은 예수의 가르침을 바울의 변화된 부활이후의 상황이나 또는 헬라세계에서 그의 독자들에게 더욱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였다.

여기서 바울이 예수 전승을 사용한 예들을 살펴보자. 그 첫 번째 예가 고전7:10-16을 들 수 있다. 이 구절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7:10에서는 괄호를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임을 정확히 구별하여 말하고 있다. 원칙적이고 변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지만, 변화된 상황에서 자신의 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자신의 말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본다. 그래서 12절에는 괄호를 통하여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고 단서를 붙이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의 예로서 고전 9:14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을 들 수가 있다. 이 말씀은 눅10:7("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군이 그 삯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과 마10:10("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군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의 예수님의 말씀을 바울이 영적으로 해석하여 기록한 것이다.

세 번째로는 고전8-10장까지의 말씀에서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의 교훈을 적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자유와 사랑의 이중계명을 신중하게 적용하고 있다.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하여 바울은 네가지의 명령법을 통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힌다: 1) 우상숭배를 금지하라. 이방 신전에서의 식사교제는 해서는 안된다; 2)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3) 이방인 이웃에 초대받았을 때는 묻지 말고 제공된 음식을 먹으라; 4) 그러나 신앙이 약한 형제를 실족케 할 때는 먹지 마라 (또는 이방인 친구의크리스챤에 대한 도덕적 기대를 저버리게 될 때).

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잘 반영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먼저는 철저하게 우상을 금지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위의 2)번과 3)번]. 동시에 이웃사람에 대한 계명을 잘 반영하고 있다 [위의 4)번].

좀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은 유대의 형식주의를 배격하셨다. 음식 가리기, 청결의 법, 안식일 등에 대하여 반대하셨다 (막7:15, 19; 롬4:14, 20). 이런 예수님의 사상은 바울에게서도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이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의 이중계명 사상이 바울에게 깊이 나타나 있다. 즉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의 정신이 바울에게 깊이 있다. 우상을 금지하도록 함으로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약한 형제들을 실족케 하지 말라고 함으로 이웃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입장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적용하지만 "하나님의 법"과 "그리스도의 법"에 자신을 종속시킨다.

바울은 결론적으로 모든 것을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10:31)고 말씀하고 있다. 동시에 이웃사랑 안에서 행하라고 말하고 있다(10:32-33). 그래서 그는 자신있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같이 너희는 나를 본 받는 자 되라"(11:1)고 하고 있는 것이다.

* 이것은 김세윤 박사가 본교 2002년도 봄학기 학술세미나에서 강의한 내용을 편집부에서 정리한 글이다. 지면 관계상 전문을 다 싣지 못한 것을 양해하기 바란다.

빛진 자들

윤성환 장로
(본교 동문회장)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의 모교가 날로 발전하여 명문교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 동문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교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뜻과 생각이 전혀 무시되어 버린채 싫든 좋든 부모의 뜻에 따라 입교했던 초,중,고등학교 시절의 그 학교들마저도 내 모교라면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는 인간의 본능일 것입니다. 나의 자식이 남의 자식보다 귀하고 소중하듯이 말입니다. 심지어는 동물들의 세계까지도 그들의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모습들을 실지로 우리주변에서 혹은 화면을 통해서 많이 보아왔던 장면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못하는 짐승! 물론 배움이 없고 느낌과 감정이 없는 동물! 자존심과 의리가 없는 글자 그대로 미물 짐승의 세계에서까지도 그들이 자기 새끼에 대한 관심과 보호의 열망은 인간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역시 동물세계에서도 **자기 것에 대한 사랑의 표출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문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부귀영화와 세상에서 추구하는 성공이라는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 한 소망을 갖고 '월드미션' 문을 두드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나의 삶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남을 위해 살고 약한 자와 실의에 빠진 자에게 소망을 불러 일으켜 주며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형제의 고통과 슬픔을 같이 울어주고 싸매주며 우리의 목숨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분투하시는 동문들에게 실현할 수 있는 꿈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는 623개의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의 모교인 '월드미션' 신학교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50년,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신학교도 많습니다. 우리 '월드미션' 신학교는 이들과 비교할 수도 없는 짧은 12살 밖에 되지 않은 역사 속에 AABC 가입신 청서를 제출해 놓았으며 또한 학교 자체 건물도 물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요. 이 기쁨의 영광을 첫째 하나님께 또한 헌신적으로 기도와 사랑의 물질을 드리는 모든 이사님들과 기도후원회 그리고 특별히 OMC 성도님들게 이 지면을 통해 감사를 모든 동문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우리 동문들은 받은 사랑과 받고 있는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이 사랑의 빚을 우리는 꼭 갚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선후배 동문 여러분!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랑의 빚을 갚을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우리가 받은 '월드미션' 졸업장을 빛내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손꼽히는 명문교 뒤에는 한결같이 모교에 대한 남다른 사랑과 관심을 쏟아 붓는 '동문들'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받은 그 졸업장을 우리가 빛내야 하겠습니다. 명문교는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동문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 합니다. 동문들이 모교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확신합니다.
동문들이 가져야 할 관심은 모든 모교행사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는 마음입니다. 첫째, 동문 한 분이 신입생 한 명을 추천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신입생 환영의 날에 기도와 사랑으로 관심을 갖고 참석하는 일입니다. 둘째, 후배들의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마음 깊이 축하해주는 일입니다. 위의 두 모임 행사에 **우리의 사랑과 관심**을 진하게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사랑과 관심을 빚진 자의 삶에서 자유케 해 주시며 우리의 모교 '월드미션' 신학 대학교가 세상에서는 물론이요 주님께서 가장 기뻐 쓰임 받는 동문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광찬 장로
(본교 기도 후원회 회장)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이므로 잠깐이라도 중단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기도할 때는 하늘 문이 열리고 불이 내려오며,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변화가 일어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특히,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로 구약시대부터 모세를 비롯하여 역대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였고 무엇보다 우리들에게 가장 친숙한 MODEL은 예수님이셨다. 요한 복음 7장 9-21절에 보면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라고 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항상 기도하셨고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계속해 기도하시는 것 같이 우리들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러한 취지로 (1996년 1월)부터 월드미션신학교에서는 학교의 발전과 신학생들을 위해 총장님께서 기도후원회를 창립하고 신학생들과 성도들 사이에 일대일로 MATCH시켜 학생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해 주기로 하였다. 이와 동시에 학생들에게 필요한 제반사항을 돕기 위해 첫째는 식사제공을 한다. 둘째는 교통난을 해소해 주기 위해 중고차를 DONATION 받아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는 등의 일을 하여 학생들을 돕기 위해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 그 결과로 학교와 학생들의 많은 발전을 보아왔으며 현재는 130여명의 졸업생들이 오대양 육대주의 곳곳에 흩어져 하나님의 지상명령이신 인류의 영혼구원을 위해 그 사역을 담당하고 있다.

부족한 내가 후원회 회장으로서 여러 임원들과 함께 21세기에는 AABC 가입과 신학교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신학생들이 아무런 불편 없이 공부에 주력하고 졸업 후에는 맡은 바 사역지에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 드리기 위해 기도로써, 물질로써 돕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하고 있다.

학우들에게

한광덕 (M.Div.)

저는 이번 2002년 6월 2일 졸업예정인 한광덕입니다. 지난 3년 6개월전 월드미션대학교의 면접 때 임동선 목사님께서 목회자의 첫째 덕목이 무엇인지를 물으셨던 때를 기억합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목회자 덕목의 첫번째는 인격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가정입니다." 라고요. 이제 졸업을 앞두고 길다면 길고 또 금새 지나가버린 지난 3년 반의 시절을 되돌아보며 참 복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모습으로 시작한 공부가 이제는 졸업생이란 모습으로까지 성장시켜주신 그 사랑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 덜익은 감처럼 누구에게나 떨뜨렴하던 제 모습이 이젠 조금이나마 변하였으리라는 기대속에 제 자신을 들여다 봅니다. 그동안 제 가슴은 더 뜨거운 하나님의 감격으로 채울수 있었습니다. 공부를 통해 더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부족하고 약하지만 그래도 3년 반전보다 더 뜨거움으로 감격으로, 성령으로 채움받게 되었습니다. 아직 그 인격까지 도달하진 못하였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이 되고자 무릎 꿇고 기도하려는 몸부림이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더 배우고 쌓고 훈련하여야 할 많고 많은 것들을 남겨놓고 있고, 배운것 보다 배워야 할 더 많은 것들을 뒤로 한 채로 졸업을 해야한다는 생각에 부담감마저 갖게 됩니다.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깨닫기 시작했는데 졸업이라고 하니 아쉽기도 합니다. 피곤하고 힘든 시간들도 있었지만 3년 반의 기간은 저에게 가장 가슴벅찬 흥분된 시간들이었습니다. 조금씩 하나님을 배우고 나를 깨닫는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목회자의 첫째 덕목인 인격을 다 다듬지 못하고 졸업을 해야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나에겐 이 시간들이 참으로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배운다는 왕성한 의욕으로 강의실에 앉았다가 피곤과 졸음으로 눈꺼풀과 씨름만하다가 끝나고 돌아오는 차속에서는 멍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 시간은 참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떤 때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이해와 섭리를 느끼고는 당장이라도 목회전선에 뛰어 들고픈 충동도 느꼈었습니다. 숨죽이고 기다리던 시험시간과 성적표를 뜯어보던 가슴 설레임이 찬양의 한구절 한구절처럼 흘러갑니다. 인생의 비디오가 있다면 그 소중하고 아쉬웠던 순간들을 다시 한번 되돌려 보고 싶기도 합니다.

학우 여러분 !

저는 이제 막 달걀에서 깨어져 나오는 병아리처럼 이제 목회의 세상에 첫 발을 디디려 합니다. 3년 반동안이라는 월드미션의 껍질속에서 영양분을 먹고 자란 병아리같은 저는 이제 마음껏 뛰기도 하고 말씀이라는 모이를 쪼아 먹고 물한모금 마시고 하늘을 쳐다보는 어린 병아리처럼 기도의 물을 마음껏 마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려 합니다. 어미 암닭의 소리에 기우뚱 기우뚱 종종 걸음으로 따라가는 병아리처럼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따라가려 합니다. 때로는 엉뚱한 것을 쪼아대기도 하고 넘어져 아프기도 하고 엉뚱한 곳에서 헤메기도 하겠지만 암닭이 되어 알을 낳아 품을수 있을 때까지 마음껏 뛰고 먹고 자라가려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알을 낳고 가슴에 품어 새로운 생명의 병아리를 돌보고 품을 수 있는 건강한 암닭이 될 때까

지 열심히 배우고 달려갈 것입니다. 이제 저는 약간의 떨림과 아쉬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뜨거운 가슴이 있기에 감격과 감사로 담대히 졸업의 문을 열고 나서려 합니다. 남은 인생에 인격이라는 덕목을 숙제로 답안지를 작성해 나가려 합니다. 또한 그동안 저를 한번도 실망시키거나 화 한번 내지 않고 또 한번의 불평도 없이 이 길을 기쁨으로 도와준 아내 제니에게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한 구원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인생의 최고 선물로 당신을 나에게 주셨습니다."라고.

학우 여러분 !

월드미션 신학교를 들어오기 전에는 저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풍요로워지는 것을 보는 것이 내 행복이 되었습니다. 월드미션 신학교를 들어오기 전에는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대우를 받는 것이 나의 행복인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대우를 받고 자신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 당당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으로 행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월드미션대학교를 오기전에는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감사의 제목이 있는 것이 나의 행복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갖게 되는 것을 보면 행복이 넘칩니다. 저는 이 학교를 참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학교를 사랑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것으로 채울수가 있었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배울수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세우신 학교입니다. 마음껏 배우십시오. 마음껏 날으십시오. 마음껏 채우고 뜨겁게 감격하십시오. 가슴을 열고 펼칠수록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처음 신학교에 들어오면 신학박사가 되었다가 다시 목사가 되었다가 평신도가 되었다가 졸업을 할 때면 무신론자가 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의 기도는 이 3년 반의 월드미션 신학교를 통해 참으로 많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그 십자가의 끓어 넘치는 피가 이 신학교를 통해 내 가슴속에 강하게 솟구치듯 수혈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학우중에는 중도에 학업을 포기해야만 하는 학우도 있었습니다. 뜨거운 가슴을 품었지만 먼저 하늘나라에 간 학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모두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의 바로 선 일군이 되어봅시다. 학우 여러분 저는 이곳에서 뜨거운 가슴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많은 것으로 배우고 나 자신이 정말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발견하고 감격하였습니다. 많은 도전과 비전으로 채우는 장소였습니다. 감격과 찬양으로 피를 토하듯 예배하며 기도하게 된 훈련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월드미션대학에 들어와서 후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조금 더 일찍 시작했더라면 하는 후회였습니다. 10년만 일찍 시작했더라면 그만큼 더 빨리 행복하고 더 일찍 하나님을 위해 달려 갔을텐데라는 후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의 삶은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마음껏 웅비하십시다. 마음껏 솟아오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혼을 태우십시다. 당신을 사랑하셔서 이곳까지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상상치 못하였던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親愛的 婦人 (사랑하는 아내에게 : 치인 아이더 프우렌)

김대준 (M.Div.)

여보 ! 곱고 아름다운 당신의 모습에 반해서 하루라도 못 만나면 몸살이 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8년이 지나고 중년이 되었소. 당신에게 편지를 쓰려니 병원, 아산 현충사, 당진에 오가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데이트하던 때가 새삼스레 생각이 납니다. 그 동안 가정을 위해 생활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소? 첫아이를 쌍둥이로 기르느라 고생하고, 큰 집안의 맏며느리 노릇하랴, 병약한 친정 어머니의 간병하랴, 결혼생활에 고생이 너무나 많았소. 더욱이 쉽지 않은 중국선교사 생활 7-8년에, 10여번씩 이사하며 무척이나 힘들었던 일들을 잘 감당해준 것, 참으로 고맙소. 더욱 고마운 것은 내가 사경을 헤매게 되었을 때와, 감옥의 위협과, 추방과, 가족들의 테러 위협, 앞에서 당신이 보여준 기도의 자세와 변치 않는 굳건한 믿음의 모범이 너무나 귀하고 고마웠소. 우리 가정의 오늘이 있는 것은 당신의 크고도 많았던 희생과 헌신 덕분이요.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지만, 내 마음의 깊은 감사와 사랑을 직접 표현하기가 왠지 쑥스러워서 편지로나마 나의 진심을 대신 전합니다.

당신 생각나오? 健國飯店 뒷집에서 선교사들의 훈련생들, 그리고 집 없는 나그네들을 재우고 먹이고, 섬기던 일? 갑자기 들이닥친 20-30명의 일꾼들도 짜증 한번 내지 않았던 것, 짧은 시간에도 식탁을 마련한 당신의 음식솜씨에 감탄하며, 다들 놀라워하던 모습들이 잊혀지지 않소. 지독히도 냄새나는 중국 걸인들을 씻기고, 먹이고, 입혀 보내던 당신의 고운 마음 씀씀이는 그 땅의 형제자매들이 잊지 못하는 감동이었소. 제자 훈련받는 훈련생들을 위해서 그 먼 거리도 마다않고 식사를 만들어 나르던 그 정성도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르겠소. 열악한 환경과 혹독한 추위에 아이들과 나를 위해 정성으로 살림 꾸린 당신의 고생은 나와 아이들이 영원히 잊지 못할 거요. 언젠가 당신 간증하면서 "나는 밥하는 사명자"라는 말을 했을 때 당신 밥 사역때문에 우리의 선교 사역이 효과가 컷다는 것을 깨달았소. 몇 일 전 당신의 어깨가 아프다며 안마를 해 달래잖아? 그러면서 나에게 무슨 말 한지 알아? 요즘은 내가 밥 많이 안 시켜서 그 전만큼 아프지 않다고 하잖아, 여보. 정말 미안하오. 정말 고생했어! 당신의 헌신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복 주신 것 아니겠소? 우리들의 사역을 복 주실 때 당신의 섬김 때문에 더욱 좋은 열매, 더욱 많은 열매 맺게 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가장 부족한 자인 당신과 나를 부르시고 우리 인생의 젊고 중요한 시간을 받아주시어, 사용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북한과 중국에 적지 않은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수많은 제자들을 양육하게 하심을 감사합시다. 우리의 열매들을 통해 중국과, 북한과, 한국에서까지,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주님과 귀한 사역에, 당신과 우리 가정이 쓰임 받은것이 자랑스럽고 기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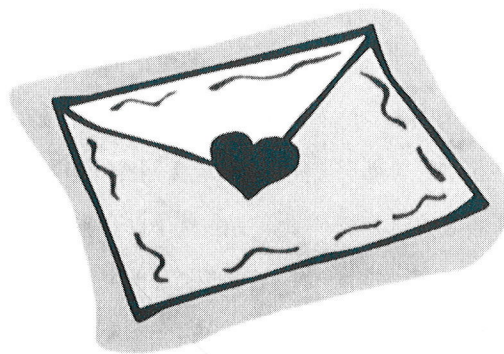
사랑하는 여보! 못난 남편으로서 당신에게 사과할 것이 너무나 많소. 사역한다고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이 미안하고, 교회개척 한다고 수많은 날 집을 비운 것과, 집에 있는 날도 사람들 데려다가 당신을 힘들게 한 것도 미안하오. 지금도 안식

년이라고 하지만 거실도, 소파도 없이, 편히 쉴만한 공간도 없는 좁은 집에서 여전히 고생을 시키니 미안하오. 더욱이 내 공부를 핑계 삼아 당신과 아이들에게 생활비의 부담까지 끼치며 힘들게 하니, 정말 면목이 없고 내 마음이 아프오. 이 모두가 나의 부족함 때문이오. 그러나 이 훈련으로 인하여 주안에서 우리 가족이 정금 같이 단련되어 더욱 귀하고 복되게 쓰임 받을 것을 굳게 믿소. 앞으로 남은 나그네 인생길에 더 힘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길이 주님의 종 된 길이려니 생각하고 더욱 많이 이해하고 도와주오. 부족하지만 이전보다 더욱 아이들과 당신을 사랑하며 가정을 섬기도록 노력하겠소.

여보, 당신과 내가 이제까지 경험한 임마누엘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미래를 책임지실 것을 생각하면, 어쩐지 가슴이 설레고 기대가 되지 않소? 우리의 기도대로 주님께서 아이들을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게 해 주실 것이고, 우리는 중국으로 가서 우리의 남은 사역을 열심히 하게 될 테니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앞으로 진일이와 동일이를 정말 실력 있는 우리의 후배 선교사로 준비시켜 주실 거요. 확신 하기는 당신과 내가 다져 놓은 길을 따라서 아이들은 주님의 사역에 더욱 귀하고 복되게 쓰임 받을 것이요. 우리 가정은 주님의 기쁨이 될 것이고 하늘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것이기 때문이오.

여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작품이지? 다투기도 많이 하고, 사건도 많은 우리지만, 날마다 주안에서 성숙해 가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앞으로는 더욱 더 서로의 허물과 부족함을 이해하고 채우며, 아름답게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주께서 당신과 나에게 주신 소명을, 착하고 충성 되이 감당하여,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게되는 날 까지 열심히 달려갑시다. 요즘 내 기도에 당신과 아이들을 위한 기도가 부쩍 많아진 것 모르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 동안 못 다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소. 親愛的 婦人! 만약 주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 해도 나는 당신만을 사랑하며, 당신과 동역 하겠고. 여보! 당신이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사랑하는 당신 때문에 힘이 납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남편 김대준 宣敎師가.

간증문

진성백 (B.A.)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삶은 고등학교 일학년 시절이었다. 친구의 전도를 받아 교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성실한 출석과 정상적인 학업에 열중하며 평온한 삶을 살게 되었지만 이렇다할 신앙의 체험은 없었다. 심지어 성가대에 10여년을 참여하여 섬겼고 주일학교 교사로서 또 10여년을 봉사했으며 말씀을 받을 때는 기뻐도 했고 감사의 찬양에 뜨거운 체험도 하였지만은 깊은 주님과의 만남을 확신하지 못하게 됨으로 구원의 확신이 때로는 희미해지고 의심하는 때도 있었다. 그런데 그 계기를 벗어나는 기회를 맞게 되었다. 교회에서 장로 선출 투표가 있게 되었는데 34세의 젊은 나이에 단독 선출되었다. 남들이 보면 열심히 한 신앙생활과 각종 봉사에 적극적인 점만 보았지 내면 깊은 곳의 신앙적 체험이 허약한 것은 보지 못한 것 같았다. 선출되기 전에는 남자로서 한번 해 보고 싶은 의욕도 있었지만 막상 피택되었을 때는 무척이나 두렵고 떨려서 후회도 했다.

살다보면 젊은 혈기로 다툼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께 헌신은 커녕 영광만 가리울텐데 아무리 보아도 자신이 없고 두려움은 가중되기만 했다. 혹시 목사님이 교회운영에 사람이 필요하여 나를 뽑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며칠을 근심하고 망설이다가 나도 모르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이번에야말로 내가 직접 기도의 응답을 받아보자 생각하며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은밀한 기도를 시작하였다. 장로 피택이 교인들이 하였는지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셨는가 응답을 원하는 기도였다. "주님 당신이 부르셨다고 제게 직접 표적을 주십시오. 보거나 듣거나 만지거나 냄새를 맡게 되거나 아니면 꿈에라도 제게 말씀하시면 제 생을 당신을 섬기며 살겠나이다. 이 모습 이대로 이 직분에 임하게 되면 젊은 나이에 주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내 혈기로 주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오니 내 인격 깊은 곳에 주의 형상을 닮는 확신을 주시옵소서..."

일년 내내 이것만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지만 응답은 없었다. 정성이 부족한 것 같아 교회에는 "준비가 덜 된 것 그러니 한 해만 더..." 일년 후로 행사를 미루고 더욱 적극적으로 기도 하였다. 매일 교회에 가서 한 시간 혹은 철야기도로 주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두 번째 해도 저물어 가는 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이때까지 내게는 환상도 방언도 영몽도 몰랐고 더욱이 기도 응답은 우연히 재수 좋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되었다.나는 다시 세 번째 해에 기도를 계속하였다. 셋째 해는 약간 더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 내게는 무슨 죄가 많길레 아직 주께서 나를 부정하게 보시는가? 아니면 기도의 응답은 거짓인가? 그렇다면 나는 주님이라는 예수님을 버려야 하는가? 나는 내 기도를 안다. 땅의 것을 구하지 아니했다. 다만 주의 응답 "내가 너를 세웠다"는 표징뿐이었다. 응답이 없으면 성경이 거짓 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다. "괜히 혼자 거룩한 척하고 교회에 누를 끼치고 본인도 고생하는구나! 그냥 장립하고 평안히 참으며 봉사의 삶을 살 걸..."나는 근심과 걱정으로 바짝 여위었다. 밥맛도 없어졌고 잠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러나 세월은 자꾸 흘러 또 한해가 임박하게 다가왔다. 그런데 이상한 평안이 왔다. 긴 싸움이 끝나가는 듯한 불확실한 역설적인 평안

이었다. 내 할 일은 끝났고 쉼이 있겠지 하는 맘과 엉뚱하게 주님이 세우지 않으면 천재지변이라도 생겨 무효가 된다는 확신 같은 평안이었다. 더 이상 교회에선 기다릴 수 없어 임직식을 추진하고 있었고 집에서도 잔치 계획을 세워 준비하고 있었다.

임직식 전 마지막 날 밤에 나는 일찍 교회로 가서 여느 때와 같이 기도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상한 환상이 내게 뚜렷이 보이는 것이 아닌가! 아주 어린양이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가는 장면이다. 이때까지 나는 실물 양을 보지 못했다. 다만 그림으로만 보았을 따름이었다.양이 끌려가기 싫어서 발을 버티면 가차없이 목의 쇠사슬이 강하게 나꿔채어 끌어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데 양은 싫은 기색이 없이 자꾸 끌려만 가고 있었다. 누군지 끄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나는 그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이라 생각하고 불쌍해서 슬피 울었다.

밤 10시부터 보였던 환상은 눈만 감으면 계속해서 한 장면만 보였다. 밖을 칠흑같이 어두웠으나 둥근 원안의 어린양은 환한 빛으로 선명하게 보이는데. 양! 그가 그렇게 온순한지는 그때야 보았고 알았다. 밤이 새도록 나는 어린양이 불쌍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울기만 했다. 한참 울다가 왜 내가 이 양 때문에 이렇게 우는가? 주님은 언제 내게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인가? 주는 나를 부르셨는가? 하고 다시 한번 질문할 때였다. 끌려가던 양이 갑자기 서서 나를 똑바로 쳐다보는 것이 아닌가! 아주 천진난만하며 불평의 기색도 짜증 섞인 표정도 없이 미련하고 순하다. 나도 그 양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순간 나는 자지러지게 놀라고 말았다. 양의 얼굴 대신에 내 얼굴이 거기에 붙어있지 않은가! 이 때가 새벽 3-4시경이었다. 아주 깊은 밤 주가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고백이 내 입에서 터져 나왔고 나는 그날 하루종일 아무 것도 먹지 못하고 울기만 했다. 내 몸에 그렇게 많은 눈물이 들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리고는 장립식에 참석했고 장로가 되었다.

이후 주의 은총으로 나는 그가 주시는 모든 부분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 주의 음성을 듣기도 하였고 보기도 했으며 꿈도 꾸었고 심지어는 향취도 체험하게 되었다. 더 더욱 감사한 것은 많은 응답과 확신을 수시로 받으며 교회를 섬기게 되었고 특히 사단의 역사를 보여주심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는 체험을 하게 되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그 분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특히 교회에 대한 기도 응답을 속히 하신다. 남은 생은 주가 사랑하신 교회를 사랑하며 살리라 다짐한다.

무엇이 우리를 매진하게 하는가?

김창국 (M.D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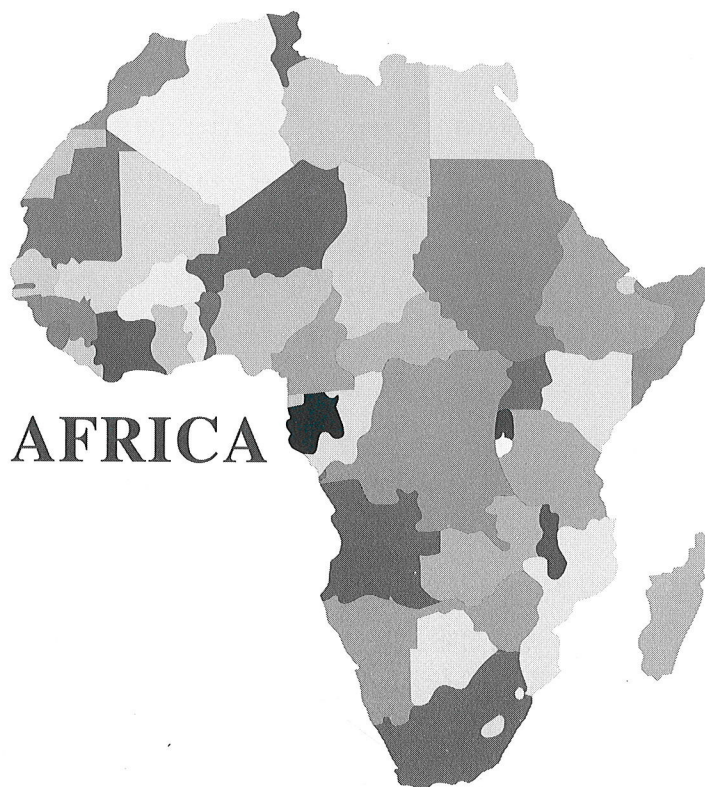
아프리카에서 미국을 향하는 발걸음은 나의 마음이 너무나 벅찬 나머지 흥분의 연속이었다. 예전에 미국을 몇 번 다녀간 경험도 있었고, 캐나다에서 짧은 기간 공부를 한 적이 있어 이쪽의 학교는 아름다운 숲과 넓은 운동장을 꿈꾼 나에게는 월드미션 대학의 멋진 캠퍼스(?)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물론 선택은 내가 한 것이라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느 곳에나 잘 적응할 수 있는 최적의 몸을 주었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아주 재미있고, 은혜롭게 지내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한국을 떠나 아프리카에 도착했을 때 보다 더한 심한 문화 충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고 기후도 최적의 기후라는 L.A.가 이렇게 삭막할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다. 아프리카에서는 거리에 방황하는 청소년을 보면 불러서 먹을 것도 사 주고 약간의 설교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물론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어떤 힘이 있었는지 그들을 야단치기도 하고, 강제적으로 데리고 가서 목욕도 시키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이곳에서 거리에 차유리를 닦아주는 친구를 잡고 이야기를 하려니 영업을 방해하지 말고 가라는 것이었다. 그것도 아주 무섭게 말이다. 그후로는 길에 서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기가 정말로 힘들다. 힘든 것 보다도 이들에 대한 선입견이 마약, 갱, 총기 등으로 연결이 되어 접근하기가 싫다고 해야 옳을 것 같다. 이렇게 미국생활은 시작되었다.

학비만 해결되면 그럭저럭 살 수 있으리라던 마음은 하루를 가지 못했고 미국에서 버티려면 산업현장에 뛰어야만 했다. 새벽에 청소를 하고, 낮에 운전을 하며, 배달을 하고, 저녁에는 공부를 하는 이러한 일이 힘들기는 했지만 아파트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아내와 딸이 생활을 하고 지내는 모습을 볼 때 그저 당연하다는 마음만 여겨지고 특별하게 생각되진 않았다.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미래에 비전이 우리의 삶이 어렵더라도 족히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으리라 믿는다.

주경야독이란 말을 내 스스로에게 쓸 수 있는 날이 온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앞으로의 사역에 대해서 적용을 하게 될 것을 준비하고, 지금까지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좋을 계기이기 때문이다. 미국이란 나라가 아무리 삭막한 나라가 될지라도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노력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라는 것을 믿는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에도 끝없이 노력하고 좀 더 행복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전진하고 있다. 무엇 때문인가? 무엇이 우리의 정력을 다 쏟도록 만드는가? 우리는 답을 잘 아는 데 표현을 못할 지도 모른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주변 사람

과 자신의 성경지식의 습득을 위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빌 1:20-21)

월드 미션대학의 멋진 교수님들과 숲을 이루고 멋진 학생들과 함께 공을 차는 꿈을 가지며 주님이 있는 미래를 향해 매진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일기

서필관 (M.Div.)

미국에 온 후 성경을 읽으면서 새롭게 발견한 것은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이민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았다. 이 사실은 오늘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 나 자신과 여러 이민자들의 현실을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주님을 배우는 삶에 큰 동기가 되고 있다. 1998년 7월 서울 김포공항에서 이곳 미국 L.A.로 향하는 비행기 속에서 주님께 기도했던 기도제목이 생각난다. 그토록 하나님과 말씀과 제자삼는 사역의 비젼에 헌신된 형제들을 뒤로하고 신학을 하겠다고 앞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길을 선택하여 또 다른 모험을 시도하면서 함께 하는 가족들에게는 자신감을 나타내 보였지만 내심은 두려움과 걱정이 마음속에 있었다. 그러면서 기도한 것이 나의 가는 앞길에 주님께서 무엇보다도 먼저 만남의 축복을 내려 주시도록 기도했었다. 그 후 지금까지 미국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새로운 만남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 축복된 만남들을 통해 나의 생각의 틀(Paradigm Shift)이 변화되고 발전하는 계기를 가져왔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에 따라 충성된 마음으로 자신의 사역을 열심히 배우고 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과 사랑을 가진 경건하고 헌신된 믿음의 사람들과 우리 월드미션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배우고 소개받은 좋은 책과의 만남이 그것이다. 이 만남의 축복의 중함을 깨닫고 나서부터 나는 나의 가족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꼭 만남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하곤 한다. 우리 나그네 인생 길에 가장 중요한 만남은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일 것이다. 그리고 주님을 올바로 믿고 헌신된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다. 또한 예전에는 그리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글과 책과의 만남이 나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게 했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지혜와 지식의 유용한 정보를 얻음을 통해 나의 숨어 있는 재능을 발견하고 계발할 수 있음을 알게 해 주었다. 얼마전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한 장로님으로부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 초기 선교 시에 쓴 기도문을 구했다고 하시면서 내게 보여 주셨다. 옮겨 쓴 종이 위에 잘 보이지 않는 기도문을 내 컴퓨터로 다시 정리를 해 드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 경건의 시간에 그 기도문을 다시금 읽어 보았다.

나는 성경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성경 본문을 가지고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기도하곤 하는 기도문이 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읽는 본문 말씀을 통해 이 글을 쓴 원 저자의 마음을 경험하며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날도 기도를 드리고 이 기도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성령께서 얼마나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지 읽으면서 한 동안 울기만 했다. 한 사람의 헌신된 선교사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지를 새삼 깨닫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바로 이 언더우드와 같은 헌신된 선교사의 기도와 복음 전파를 통해서였음을 통감했다. 또한 기도문 속에 보여지고 있는 믿음의 선배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상황을 오늘날 주님을 믿고 따르는 나의 상황과 비교해 보면서 큰 격려와 도전이 되었고 나름대로 몇 가지를 나의 삶에 적용도 해 보았다. 우리학교는 여느 다른

신학교보다도 세계 선교에 목표를 둔 신학교이다. 한국 선교 초기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과 우리 민족의 선교를 위해 온 생애를 헌신 했던 두 선교사님을 소개하면서 나 자신을 포함해 모든 우리학교 학생들이 졸업 후에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영혼에 대한 사랑과 선교에 대한 부담감과 믿음의 시야를 본받아 아직도 복음의 씨가 뿌려지지 않고 있는 세계 각처로 흩어져 나아가는 제2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다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선교의 열망을 주시고 헌신된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해 본다.

" 오! 주여, 지금은 아무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 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 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하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 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 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 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
- 한국 선교 초기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 -

『언더우드』 선교사의 생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

우리 민족에게 최초로 선교사로 오신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복음화 되기를 그토록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신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1883년 신학교 연맹 모임에서 조선 민족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었다. "지금 조선은, 천3백만 민족이 복음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채, 가난과 질병과 학대 속에서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드디어 작년에 문호를 열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조선 민족을 위해 선교사로 갈 것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알버트 목사님의 호소력있는 메시지는 많은 신학생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다. 언더우드는 그 당시 인도 선교사로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 선교에 대한 강한 도전을 받았으나, 조선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는 인도로 선교사로 가기 위해 인도말을 자유롭게 구사할 정도로 잘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알버트 목사님의 조선 선교의 권유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반응을 보이지 않자, 언더우드는 개인적으로 친구들에게도 권유해 보기도 했지만 그들은 다 국내에서만 사역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왜들 이럴까? 헌신을 맹세한 사람들이 왜들 다 미온적이고 부정적일까? 복음의 처녀지,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 땅으로 갈 선교사가 이렇게도 없다는 말인가?" 그때 돌연히 강력한 반문의 소리가 그의 마음을 두드렸다.
"너는 왜 못가느냐?" 그것은 자신의 목소리나 자신의 뜻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한 주님의 부르심의 메시지였다. "그렇다 왜 나는 못 가는가?"
그는 단 한번도 복음을 못들어 본 미전도 종족인 조선민족에게 선교의 우선순위가 있다고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또 한번의 희생을 치루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인도를 위해 인도말을 배우고 준비해 놓은 것들을, 모두 조선 선교를 위해 포기하기로 한 것이다. 어려운 결단을 하고, 조선을 선교지로 정하고 나서 교회와 선교부에 조선 선교사로 가기로 요청을 하였지만, 두 번씩이나 거절당하고 말았다.

그는 조선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장로교 본부회의에서 조선 선교사로 임명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그는 미전도 종족인, 우리 민족을 가슴에 품고 설레는 마음으로, 장도의 길에 올랐다. 한 달여 걸리는 긴 항해 끝에, 일본을 거쳐 1885년 4월 2일 부산 앞 바다에 잠시 정박하여, 조선 땅과 조선 민족을 처음으로 바라보고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그 후 부산을 떠나 삼일 후인, 1885년 4월 5일에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 날을, 한국 교회는 최초로 기독교가 우리 나라에 들어온 날로 정하였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115년 한국 기독교사의 멋진 장을 연 최초의 선교사가 되는 영예를 얻게 되었다. 그는 최초의 장로교회인 새문안 교회를 시작으로 교회개척사역을 하였고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를 시작으로 하는 교육사업을 통해서 한국의 젊은이들을 깨워나갔다.

그가 우리 나라를 위해 이룬 업적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언더우드 같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셨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고, 그 결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축복의 삶을 허락해 주신 것이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가족은 현재 5대까지 우리 나라를 위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아펜셀러』선교사 의 생애

언더우드 선교사와 함께,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은,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인 선교사의 가족이 있다. 그는 아펜셀러 선교사이다. 아펜셀러 선교사는 언더우드 선교사와 함께 신학교연맹 모임에서 만나, 아주 가깝게 지내면서, 세계 선교의 꿈을 키워왔다. 그는 어느 날 미전도 종족인, 조선민족에게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접하고, 자기의 삶을 조선민족을 위해 드리기로 결심하고 준비하다가,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항에 도착하였던 것이다. 도착하는 날, 그는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여 ! 우리는 부활의 아침에 이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와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는 이 민족에게 빛을 비추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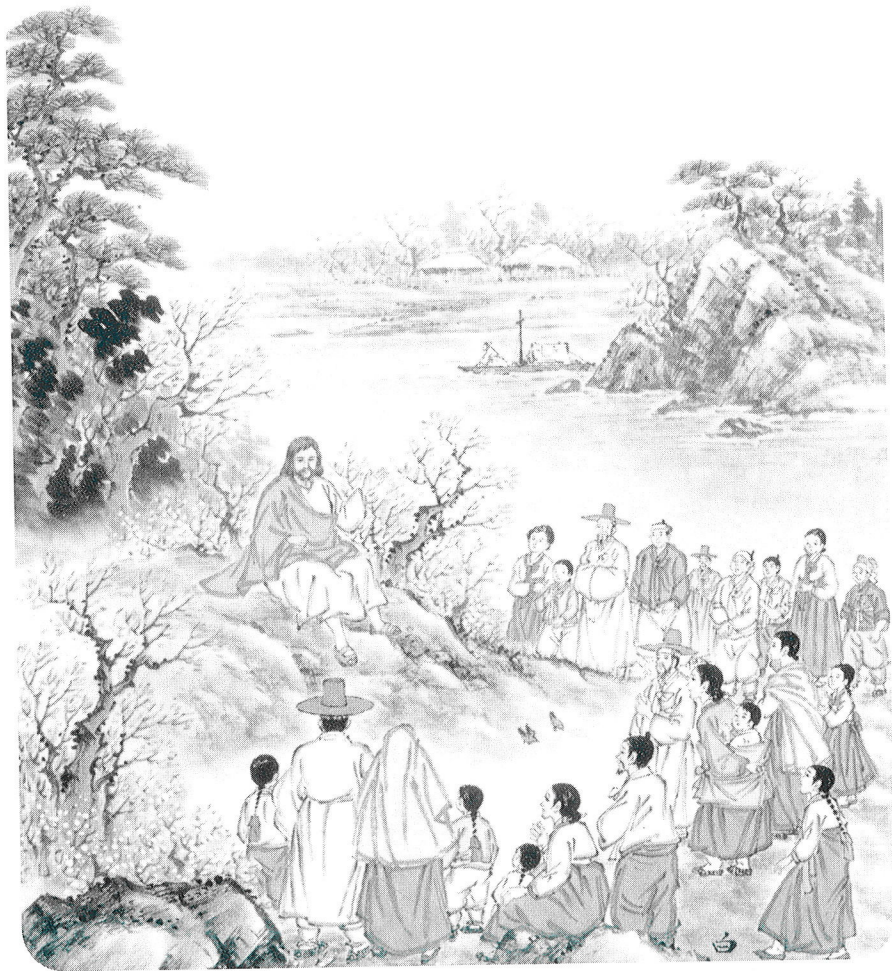
아펜셀러는 그의 기도대로 우리 민족을 위해 헌신된 삶을 살았다. 그는 초창기 조선 선교의 장을 열면서, 교회사역과 학교사역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였다. 그는 자기를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디든지 달려가서, 주의 복음을 전했다. 그날도 아펜셀러 선교사는 집회를 위해 배를 타고 목포로 가고 있었다. 항해 도중,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타고 있던 배가 파선하게 된다. 그 때 조선 소녀 하나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본 아펜셀러 선교사는 즉시로 물에 뛰어내려 그 소녀를 구해준다. 그가 소녀를 건지고, 힘이 빠져, 지친 상태로, 겨우 배에 메달려 있을 때, 다시 큰 파도가 덮치면서 , 파도에 휩쓸리어 실종되고 말았다.

40세의 짧은 생 .... 마지막까지 조선 소녀, 한 생명을 건지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바친 것이다. 그는 누구보다도 우리 민족을 사랑했던 선교사였다. 그는 20대 후반과, 30대의 황금기를 조선을 위해 바치고 가셨다. 그가 세운 교회는 한국 최초의 감리교회인 정동 교회이고, 그가 세운 학교는 긴 역사를 자랑하여 수많은 인제를 배출한 배제 중,고등학교이다. 아펜셀러 선교사는 순교하였지만 그가 하고 있었던, 선교 사역은 중단되지 않았다. 그의 딸 엘리스는 한국에서 태어난 최초의 서양아이 였다. 그는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자라면서, 조선을 이해하고 자기가 조선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알았다.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온 엘리스는 이 땅에 여성교육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아버지의 뒤를 이었다. 이화여대 학장을 지내면서, 지금 신촌의 이화여대 학교부지와 건물을 세우는데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였다. 이대 최초 한국 학장인 김활란 여사에게 학장직을 넘겨주기까지 수많은 여성 지도자를 배출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그의 아들 헨리 다지는 14세 때 아버지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까지 원망하며 방황하는 시절을 보내기도 하였지만, 철이 들어 하나님의 마음과 아버지의 조선 사랑하는 가슴을 깨닫고, 조선 선교사로 파송받아, 아버지가 세운 배재 중 · 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자신의 삶을 우리 민족을 위해 드리게 된다. 그는 6.25 전쟁 때 ... 우리 민족을 위해, 세계 많은 국가와 교회에게 우리 민족의 안타까운 실정을 전해 주면서, 춥고 배고픈 이 민족에게 수많은 구호 물품을 마련해 주기도 하였다.

헨리 다지 아펜셀러 선교사는 아버지가 못 다한 그 사역을 잘 감당하였다. 그가 병들어 미국으로 치료차 가면서 "내가 죽으면 절대로 미국에 묻지 말고 조선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하였다. 그는 간절히 조선에 묻히기를 원했는데 그 이유가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죽음의 소식을 접하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어떻게 좋은 일하러 가신 우리 아버지를 죽일 수 있느냐?"고 하나님까지 원망하며 지낸 사춘기 시절을 있었기에 더욱 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삶을 사셨던 것이다. 또한 조선에

머물며 선교사역을 하면서, 죤 헤론의 죽음으로 얻게된 땅,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선교사님들이 묻힐 때 마다, 오게 되면서, 사랑하는 자기 아버지 아펜셀러 선교사를 생각하였다. 다른 선교사님은 무덤이라도 있는데 자기 아버지는 목포 앞 바다에서 실종되어 시신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무덤도 없는 것을 마음 아파하고 하면서 지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죽으면 자기를 꼭 한국 땅에 묻어줄 것을 부탁하였던 것이다. 그의 유언 중에 이런 유언이 있다. "나를 한국 땅에 묻어 주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조선 사람을 사랑하였는지, 조선 사람으로 알게 해 달라"고 하였다. 그는 지금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묻혀 있다.

그의 무덤 바로 옆에는 아펜셀러 선교사를 기념하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고, 그의 맞은 편에는 1950년 이대 강단에서 설교하다 순교한, 그의 누님 엘리스가 묻혀있다. 아펜셀러 선교사님 가족의 숭고한 희생의 삶은, 우리 민족에게 큰 빛이 되었다. 우리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게 된 것은 이런 선교사님들의 희생의 삶이 있었기 때문이다.

(요12:24)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옥토밭

이신재 (B.A.)

파아란 하늘과
회색빛 아리워진 공간속
습기가 만연한
윤기가 흐르는 건강한 황토.
그것은 아득히 잊혀진 우리의 정서.
꾸밈없는 있는 그대로의
순박과 순수함.
나다나엘.

때 맞추어 오는 비
밝게 내리 비추는 태양빛
그것은 대자연
생. 명. 력.
심령의 가난과 애통, 의에 주림과 목마름.
마음의 청결과 화평, 의를 위한 핍박.
이들은 복받은 사람들
옥. 토. 밭.

* 2001년 여름 중국 단기선교여행, 『백두산』에서 *

기도의 본질

이희성 (M.Div.)

(QT Sharing)

2002년 4월 13일 (토)
제목 : 기도의 본질
본문 : 누가복음 9:27-36

[중심구절]
v.29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v.36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 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묵상]

기도는 본질을 나타나게 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 요한, 야고보 세명의 가장 아끼는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신 것은 그들을 위한 준비된 교훈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기도의 가르침을 전해 주기 위한 생각이셨다. 주님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마음의 준비를 하는 기도의 시간이었다. 남은 사역에 대한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음 받을 필요가 있었고 고난을 감당하며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순간까지의 자신의 사명에 대한 각오와 단호함의 마음이 필요하셨다. 그러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신 것은 자신의 기도의 필요와 더불어 기도의 본질을 보여주시고자 하신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과연 기도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의 대상의 본질이 드러나는 행위이다.** 기도하는 가운데 무슨 기도제목을 들고 나오든지 진정한 기도의 세계로 접어들면 기도 제목보다는 자신을 보게 된다. 본문에서 제자들은 기도의 시작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곤하여 졸던 장면을 설명해주고 있다. 위대한 스승이며 자신이 얼마전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였던 그 분 앞에서 졸고 있다는 이 연약함은 비단 제자들의 연약함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바로 독자들 모두 이러한 연약함을 지니고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기도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은 어쩌면 신비한 체험이기도 하다. 정말 기도를 해 본 사람이라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 것이다. 기도제목에 대해서 응해주시기 전에 기도는 우리를 벌거벗은 존재로 서게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기도의 제목들을 점검해 보면서 기도의 내용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그 이유는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과 쓸데없이 구하고 있는 것들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마6:30-32)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시기에 믿음으로 드리는 진정한 기도는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한 부분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야고보서4:3) 쓸데없이 정욕을 위해 구하면 이것도 응답이 없는 기도이다.

기도의 내용이 점검이 되면 우리는 참으로 믿음 없이 구하는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된다. 초라하고 부끄러움 앞에 자신을 보게 된다. 기도하는 시간이 힘든 것은 무릎이 아파서 이기도 하지만 자신을 벌거벗은 모습으로 대면하는 것이 고통스럽기도 한 이유이다. 그러나 이것은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존재를 발견하면서 고통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이 되는 것임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변화되시어 영광의 광채를 발하시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미 27절에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라고 말씀 하셨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본체의 영광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서의 예수님의 본질을 보여 주시고 계신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앞서 베드로의 고백대로 메시아 , 그리스도 이심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고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의 본질로서 약간 맛을 보여 주고 계신 것이다.

이것만이 아니라 여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이며, 엘리야는 에언자의 대표격인 사람이었다. 이 두 사람의 기능을 예수님 한 분이 감당하시게 되었음을 설명해 주는 것이며 이 두사람은 역사에서처럼 사라지는 존재이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과 반대로 예수님은 영원히 그 영광으로 경배의 대상이 되신 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장면이 기도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기도의 본질 속에 들어오면 부끄러운 자신을 대면하게 되고 그 이후에 기도를 받으시는 분의 영광을 대면하게 된다. 베드로는 자신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말을 떠들어댄다. 너무나 놀라서 그는 생각 없이 말을 내어 뱉었다. 그저 지금이 좋으니 이곳에 머물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터무니없는 말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신다. 영광을 대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직접 귀로 듣는 것일 수도 있지만 분명한 메시지를 듣는 것을 뜻한다. 본문에서의 메시지는 바로 이 예수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다.

영광을 대면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이라로 집약할 수 있는 것이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영광을 대면한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두 번째 기도의 본질은 기도의 종결이 예수님만으로 남아야 한다는 것이다. 구하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영광에 몸을 떨다가 결국 남은 것은 그 평범하게 함께 하시던 예수님이라는 것이다. 방금 보았던 그 영광도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도 사라졌지만 그 이전에 계속 계시던 예수님만이 눈앞에 남아 계시다는 것이다. 기도의 본질은 오직 예수님 만을 만나는 것이다.

주님을 향한 갈망과 발돋움이 기도의 가장 고결한 상태라는 것이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오르실 때의 그 분이나 변화하시어 광채를 뿜어내시던 그 분이시나, 모든 것이 홀연히 사라져 버린 곳에 서 계신 분이시나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절대적인 필요는 여기에 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이 더욱 크시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원하신다. "우리는 하나님께 겨우 몇 분을 내드리면서 그 시간에 그분이 임재하지 않는다고 불평한다. 하지만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바쁩니다'라고 말하는 나머지 23.5시간은 어떠한가? 그러므로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 불평할 권리가 없다. 그분보다 우리가 더 부재하기 때문이다." - 안소니 블룸

기도의 본질에 들어서면 우리가 하는 많은 기도를 버리게 됩니다. "기도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분께 발돋음하는 것"이라고 헨리 나우웬이 말했다. 기도하러 나오는 시간에 기도가 응답되어야 한다는 불안감과 초조함을 갖게 된다. 혹은 기도가 즐거워 주님과의 교제를 힘쓰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 이것이 영성이다. 구함에서 교제로 교제에서 영광을 만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인 것이다. 그곳에는 항상 제자들이 발견한 장면을 또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동일하게 고백하게 될 것이다.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기도]

나의 기도를 멈추게 하옵소서.

기도의 내용을 점검하게 하시고 고치게 하옵소서.

내가 나를 대면하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당신을 대면함으로 기쁨과 소망에 가득 차게 하소서.

모든 것이 사라지더라도 기도의 세계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만나고 함께 거하게 하옵소서. 아멘.

나의 에세이

이상란 (B.A.)

오랜만에 글을 쓰는 시간을 갖게 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 동안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 중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나의 지혜와 인내, 절제, 나의 약하며 어리석은 면을 깨닫게 하시었다. 또한 너무 작고 보잘것없는 나에게는 보이지 않는 심령의 구름속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성전속의 주인 되심을 알게 하신다.

나는 나 자신이 약하지만 선하게 살기를 원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신다. 모든 교만, 자랑보다 낮고 천하며 오히려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기를 서슴치 않으신 예수님을 기억한다. 예수님의 이러한 것을 기억하며 모든 것을 가진 자의 교만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롭고 신비스러운 성전의 향기가 숨쉬는 이들에게 있음을 나는 알리고 싶다. 이것은 나도 알지 못하는 것을 이미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그 세계에서 나 자신만이 누리기보다는 무엇인가 정신 없이 질주하며 성취하는 나에게도 어떤 순간의 허무와 더 깊은 자아를 깨트려 자아를 깨닫게 하고 싶은 영적인 자신의 깨트림이라 생각한다.

허무하며 무가치한 언어들 속에 욕심과 비명이 가소롭게 들릴 때가 있다. 스스로를 무시하며 스스로를 정죄하듯 사랑 모름이 나를 모든 것들로부터 얼굴을 돌리게 한다. 보이나 보이지 않은자의 겸손한 예수님의 사랑의 안식처에 있길 원한다. 온유하며 이 지구의 땅 넓이 만큼 자유로우며 지구위의 모든 공간까지도 자유로이 마음과 상상을 누릴줄 아는 지혜의 평온함을 나 자신이 기대 하기에는 들리는 소리의 응답은 메아리 조차없는 슬픈 눈물의 방울로 떨어지곤 한다.

어머니 무엇을 해 드릴까요?

김경희 (B.A.)

모처럼 늦잠 자는 토요일 아침 8시.
"사르륵, 사르륵, 또르르르 륵..."
조심조심 아침을 준비하시는 어머니의 물소리와 칼질 소리. 오랜만에 단잠을 자는 나의 아침 잠을 방해하지 않으시려는 조심성이 칼 끝에 묻어난다.

저 소리는 어언 30여년 간을 나의 귀에 익어왔다.
경동시장에서 전날 사온 약초들을 씻어 소쿠리에 바쳐 놓았다가 새벽기도 가시기 반시간전 쯤에는 콩, 콩, 콩 찧기 시작하시는 어머니. 마치 성탄절 카드에 나오는 종을 뒤집어 놓은 듯한 쇠절구에서 그 약토들은 조심스레 찧어지곤 다시 베 보자기에서 짜여져 흘러나온다.
엄마가 새벽기도를 다녀 오시는 동안 그 즙이라기 보다는 정성이라 해야 할 액은 장독대 위에서 아침 이슬을 맞고 한바탕 소동을 일으킨다. 그 쓰디쓴 즙을 먹기 싫다느니, 먹어야 한다느니의 소동으로 나의 하루는 시작 되었다.

엄마는 가끔 "넌 내게 애물이야."라고 하시곤 했다. 그렇다. 난 우리 엄마의 생목숨을 담보로 이 세상 빛을 보았단다. 나의 잉태를 알았을 때, 엄마는 이미 심한 늑막염을 앓고 계셨다. 아이는 또 다시 가질 수 있으니 산모의 목숨부터 살려야 한다고 의사는 나를 포기할 것을 강요하였다. "아이랑 같이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는 못한다."고 우기시는 어머니의 고집스런 사랑에 비하여 엄마의 육체는 너무나 허약하였고 겨우 한약으로 늑막을 치료할 수 있었다. 그렇게 태어난 나는 백일이 지나도록 사람의 꼴을 갖추지를 못했단다. 오는 감기, 가는 감기 다 걸리고, 젖은 먹어도 소화를 못 시켰다. 혈관마다 주사를 놓아 더는 주사 놓을 곳이 없도록 지쳐있을 때,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다고 나는 윗목으로 밀쳐졌다.
옆집 할머니가, "만일 똥맛이 달면 죽는 애고 아무 맛도 없으면 사는 아이"라고 애기 똥 맛을 한 번 보라고 하셨단다. 엄마는 손가락으로 찍어 맛을 보았는데 달지는 않았단다. 그 후에도 숨이 깔딱 넘어 갈뻔 하기를 수차례 겪으며 자라는 동안 친척들은 종종 이렇게 말했다. "너는 네 머리카락을 잘라 네 엄마 신을 엮어 드려도 그 은혜를 다 갚지 못한다"고. 주변의 지인(知人) 들은 나더러 효녀라 한다. 그렇지만 나는 속으로 대답한다. "당신들은 우리 엄마가 날 어떻게 키웠는지 몰라서 그래."

이제 이순(耳順)을 바라보는 고개턱에서 나는 가끔 엄마와 실갱이를 한다. 체중조절이 무릎 아프신 것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난 후부터다. "엄마, 절제 좀 합시다." "글세 말이다. 그런데 입에서 맛이 있으니 이것도 축복 아니니?"
"맞아요. 그것도 축복이니 감사하지만 절제도 성령의 열매라우. 건강해야 성지순례도. 유럽여행도 갈 것 아니유. 조금 잡숫고 오래 삽시다."
"이젠 에미 먹는 것 갖고 구박하네 재가" "그래 억울하면 절제해요."

도시락 가방을 들고 garage로 따라나오시며 한 손으로 삶은 옥수수를 잡수시다 나와 눈이 마주치셨다. "얘, 이렇게 맛있는걸 어떻게 안 먹니? 너무 눈치 주지 마아라."
91번 FWY를 타면서 코 끝이 맵싸하며 시야가 흐려진다.
"주님은 아시지요. 부디 우리 어머니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머리카락을 잘라 신을 엮어 드릴 것 아닙니까?"

수적석천 (水滴石穿)

강태준 (M.Div.)

16년전 보험회사에 입사하여 선배사원으로부터 들은 말이다. 내용인즉 "물방울이 떨어져서 바위를 뚫을 수 있다"라는 뜻이다. 이 한자숙어에 담겨있는 뜻은 끈기와 인내를 말하고 있다. 끈기와 인내하는 자 만이 살아 남을 수 있어서 그 선배는 이 말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었던 것이다.

현대사회는 스피드의 시대이다. 옛날에 서울에서 아침 먹고 부산 가서 점심 먹는다는 이야기는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말로 사라져 버리고 이제는 지구에서 아침 먹고 우주 가서 커피 마시는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는 세상을 살면서 현대인들은 빠른 것을 찾고 빠른 것에 더 익숙해져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먹는 음식부터 자동차까지 빠른 것에 더 중점을 두고 광고들을 하고있지 않는가. 성질이 급한 우리민족에게는 어쩌면 이런 세상이 더 어울릴지 모른다.

물방울이 떨어져 바위가 뚫어져 바위를 쪼갤 수 있는 인내,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성품이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하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중 오래 참음이 있지 않은가. 인내와 끈기의 뒷면에는 지속적인 뜻이 담겨져 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을 수 있는 것도 지속적인 현상에서만 가능하다. 전도야말로 이런 지속적인 것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 구원의 지름길이다. 물방울이 바위를 쪼갤 수 있는데 왜 우리는 한 영혼도 구원을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끈기가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지속적인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단발성 관심, 단발성 사랑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렇다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외쳐야 한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사랑도 베풀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변함없는 사랑을 주어야 한다. 아직도 이 땅에 불쌍한 영혼들이 많치않은가. 2000년을 기다려온 우리들이다. 그것은 끈기와 인내가 아니고 느긋한 것이었다. 느긋한 것은 상태이지 현상이 아니다. 지속적인 현상 즉 운동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바로 물방울이 바위 위로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위해 지속적인 사랑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깨질 것이고 주님을 영접할 것이다.

우리는 금광 이야기를 들어서 잘 알 것이다. 금맥이 없다고 판단한 금광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금광을 헐값에 팔았고 새로 주인이 된 다른 사람이 금광을 향하여 한번 곡괭이 질을 하니까 금맥이 발견되었다는 이야기다. 그렇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른다. 불쌍한 영혼들을 한번 더 두드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 번 더 손을 내밀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한 번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제 이웃 을 위하여 한번 더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

월드미션대학교 교가
임동선 작사
박재훈 작곡
(1992. 5. 30)
씩씩하게
Allegro Moderato
1. 주 님이부 - 르 - 셨 - 네 주님 이 부 르 셨 네 추 수 할 일 - 꾼-
2. 주 님이보 내 시 - 네 주님 이 보 내 시 네 죽 기 까지 충 성
되 - 라 우 리 를 부 르 셨 네 체 력 학 -문 연마 하 라 인 격
하 - 라 우리 를 보 내 시 네 모 든 민 -족 제 자 삼 아 땅 끝
영 력길 러보 라(길러보라) 주 - 님 (주님) 이 부 르 셨(부르셨)네 주 - 님 이부 르셨
까 지증 인 되 라 (증인 되라) 주 - 님 (주님) 이 보 내 시(보내시)네 주 - 님 이 보 내시
네
Solo piano or 오케스트라
주 님 만 스 - 승 - 삼 은 우 리 월 드 미션대학
교 주 님 만 -을 스승 삼 은 우 리 월 드미션대학 교

월드미션대학교
평신도 선교 대학 학생 모집

선교 교실의 미션

1.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선교 의식을 고취** 시킨다.
2. 선교에 관심을 가진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선교의 개념과 전략을 가르친다.**
3. 단기선교에 직접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평신도 지도자들이 선교를 경험하도록 한다.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가?

1.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싶은데 체계적인 이해를 가지고 보람된 단기선교를 가고 싶은사람.
2. **단기 선교**를 다녀왔으나 다음에는 선교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사람.
3. 당장은 **단기 선교**를 떠날 수가 없지만 앞으로 기회가 되면 단기선교를 가고 싶고 그러기위하여 지금부터 조금씩 가까운 곳에서 준비를 시작하고 싶은 사람.
4. 기독교인으로서 **선교**에 대한 전체적인 지식을 얻고 어떤 모습으로던지 선교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

월드미션대학교의 선교교실은

1. 1년 동안 3학기제로 한 학기에 네 과목씩 한 과목당 3주간 강의를 한다. 매주 월요일 오후 7:30부터 9:40분까지 두 시간에 걸쳐 강의를 한다.
2. 이 선교교실은 미주정부의 정식인가를 받은 월드미션대학교.신학대학원에서 운영을 하는 믿을 만한 교육기간이다.
3. 이 과정을 마친 사람들에게는 1)월드미션대학교 선교교실 Diploma 수요하고 2)WMU 에 진학 하였을 경우에 학점혜택을 주며 (학칙에 따라 학점인정) 3)공인된 평신도 선교사로 인정한다.
4. 본 과정은 기독교인의 선교의 선교의 사명을 성서적, 신학적, 전략적으로 확립하고 실제 단기선교를 준비하고 다녀오는 과정으로 대체적으로 세 가지 부류의 강의가 진행된다. 첫 번째 학기 (2002년 가을 학기)에는 선교의 기본적인 이론과 이해에 초점을 두고 두 번째 학기 (2003년 봄학기)는 선교의 다양한 전략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두고 세 번째 학기 (2003년 여름 학기)에는 단기선교를 실제적으로 준비하고 다녀오는 과정이다. 세 번째학기는 선택이다.

어떻게 등록을 하는가?

1. 강의는 9월 둘째 주부터 시작하며 등록은 8월 30일로 마감한다.
2. 강의료는 한 학기에 120불이다. 학기별로 분납하여 매 학기 시작 전에 낼 수 있으면 첫 학기 시작 전에 한꺼번에 내면 300불이다.
3. 부부의 경우는 한사람은 전액을 배우자는 7%를 낸다. 단체로 한 교회에서 10명 이상이 등록할 경우에는 전체 액수의 70%를 낸다.
4. 등록은 월드미션대학교 사무실에 하며 등록원서를 함께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메일로 할수 있다.

World Missio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424 S. Western Ave., L.A., CA 90004
Tel. (323) 466-4629, Fax. (323) 466-7840
E-mail: info@wmu.edu Websuite: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 · 신학대학원

A. 모집학위 및 모집학과

학위과정	학과/전공	졸업이수학점	연한	지원자격
B. A.	성경신학과	126	4	고졸
M. A	신학과	64	2	대졸
M. Div.	목회학과	96	3	대졸
D. Min	목회학과	40	3	M.Div.졸업+목회3년
유악육과	교사자격증	15	1학기	고졸
	원장자격증	18		

B. 신입생 입학요항

지원자격: 중생의 체험이 확실하고 세례를 받은자로서 선교, 목회 또는 기타 세계복음 사역에 불타는 소명감이 있는 자 (유아교육과: 세례교인으로 어린이를 사랑하는 자)

원서마감: 2002년 8월 16일(금) 오후 7시까지

구비서류: 1) 입학원서(소정양식) 2) 추천서2통(소정양식) 3) 사진 3매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5)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6) 개인 신앙간증서 7) 건강 진단서

전형방법: 필기시험 및 면접 (어학시험 및 성경 입학시험: 성경 시험 지침, 예제가 준비되어 있음) (단 유아교육과는 서류심사와 면접).

시험일자: 2002년 8월 19일(월)-20일(화) 오후 3시-6시.

장 소: 필기시험-본교 "A"강의실 면접-본교사무실 원서교부: 본교 사무실 (동양선교교회 제 2 교육관)

신입생 학과등록: 2002년 8월 21일(목) -22일(금) 개강 부흥회: 8월 26일(월) - 27일(화)

개강일자: 2002년 8월 26일(월) (* 개강 첫 주간은 부흥사경회로 모임)

신입생 환영 및 교수소개: 2002년 8월 29일(목)

교수 및 강사진

임동선, 강준민, John McKenna, 김진광, 임성진, 남종성, 신선묵 김영배, 김용창, 김성원, 김석웅,김종경, 김옥자, 김건태, 목만수, 박경순, 변명혜, 석태운, 안송주, 안성희, 안용식, 이영기, 이정근,이효숙, 에스더 유, 이상훈, 이윤주, 이기홍, 이준재, 우상범, 오기열, 윤기선, 조종남, 정장복, 정석규, 정종원, 조경현, 조석환, 정지연,최선호, 편요한, 한승수, 황의정,황마리아나, David J. Agron,Daniel Shaw, Dean Gilliland, Earl Grant, Charles Lane Scott, Van Angen, Paul Hertig

본교 장학금 제도

1)총장장학금 2)성적장학금 3)주은장학금 4)선교장학금 5)근로장학금 6)지정장학금 7)대여장학금 8)승용장학금 9)성환장학금 10) 경애장학금 11)봉모장학금 12)경혜장학금13)건준장학금 14)진호장학금 15)승천장학금 16)북방장학금17)에녹장학금 18)근홍장학금 등이 있으며 또한 동양선교교회의 각 선교회 장학금 등 각종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특별히 M.Div학과 에서 공부하는 학생과 선교사로 헌신하는 학생들에게는 우선적인 장학금 혜택을 수여합니다.

원서 교부 및 접수 기간

본교 교무처, 전화 또는 Fax로 연락 주시면 입학원서를우송 하여 드립니다, 사무실 시간은 매주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7시까지 입니다.

문의 및 연락처

월드미션신학교,신학대학원
World Missio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424 N. Western Ave., L.A., Ca 9004
E-Mail:info@wmv.edu

World Missio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월드미션대학교 및 신학 대학원)
총장 : 임동선 박사, Ph.D., D.Min * 부총장 : 강준민 목사 ; John E. Mckenna, Ph.D